

텍사·IT기업 상생 1호 '웨이코 블루' 시동 12



수제맥주로 미국 홀린 김희운 더부스 대표 21

<YG엔터테인먼트 대표>

공유오피스 '난립' 치킨게임 시작됐다

기존업체 공격적 지점 늘리기
대기업 등 신규업체 속속 진입
"업체간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 내년부터 망하는 곳 나올 것"

폭발적 성장세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공유오피스에 오피스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0여 년 전 대형마트의 출점 경쟁처럼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유오피스간 '적자생존'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 전망이 다.

▶관련기사 3면

20일 오피스 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성장한 지 3년째인 국내 공유오피스 산업이 시장이 예상하는 속도 이상으로 팽창하며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공유오피스란 건물을 여러 사무 공간으로 나눠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주로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하며, 업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오피스임대와 차별성을 지닌다.

공유오피스 산업은 공유경제·4차 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와 맞물려 급속도로 성장했다. 위워크·팩스트파이브 등 기존 업체들이 공격적 지점 늘리기에 나서고 있고, 대기업이 가세하는 등 신규 업체들이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업계는 공유오피스 증가가 오피스 시장의 공실 감소로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

상 시장의 공급량은 전혀 소멸되지 않아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계열사 대표 표는 "현재 20층짜리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의 10개 층을 공유오피스로 임대한다면 다시 그 10개 층과 나머지 10개 층을 두고 입주자 모시기 경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유오피스가 한국에 없던 새로운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공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산업 전체가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는 상태지만 내년에 사업자 간 경쟁으로 마진이 줄어드는 시점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공유오피스 대부분이 5년 장기 계약에 첫 2년 렌트프리(약정 기간에 상가, 사무실 등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 임대) 조건으로 출점함에 따라 경쟁자 증가 뿐만 아닌 차후 비용 발생 문제도 넘어야 한다.

외국계 임대관리 회사 임원은 "공급량이 늘면 얼마나 좋은 입지를 가졌느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산업이 초기 투자금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향후 이익과 비용 흐름이 이슈로 떠오르면 이제는 잊힌 대형마트 브랜드처럼 무너지는 곳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국세청 '버닝썬 게이트' 양현석 정조준

YG엔터에 조사4국 100여명 전격 투입...탈세 의혹 겨냥

클럽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양 대표는 승리 소유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함께 클럽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탈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일 연세대학교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사가 아닌 (심층)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흥

대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 대표로 전해지면 탈세 의혹이 불거졌고, 이로 말미암아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양 대표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조세포탈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등에 강도 높은 수사·조사를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

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과 아레나 사건 그리고 양 대표를 둘러싼 각종 탈세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이 나선 것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벌인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적으로 조사에 나섰다"며 양 대표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조사 처분 또한 그리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발단검에 따르면 양 대표의 보유 주식 가치는 1461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서교동 합정동 일대에 500억 원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감사 비적정' 상장사 기회 1년 더 준다

금융위, 재감사 요구 폐지...다듬해 감사의견 따라 상폐 결정

올해부터 상장사가 △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 의견을 기준으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아야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감사 의견 비적정의 코스닥 기업은 6개월 내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고 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에만 상장 폐지를 모면하고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대로 주식 매매는 정지되지만 다음 연도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구제될 방법은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는 것인데, 계약 체결이 쉽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정의 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감사 의견 변경은 더 어려워졌다.

재감사 요구가 사실상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시장과 같아진다. 1년 내 언제든 재감사를 통해 '적정'을 받으면 매매 정지가 풀리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21일 이후 감사 의견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21일 이전에 2018년도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개정된 규정으로 소급 적용받는다. 이주혜 기자 winjh@



내 일자리는 어디에...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총 화두는 '혁신·초격차·AI·5G'

김기남 부회장 "연간 9조6000억 배당할 것"

주주 1000여명 참석...작년 2배

"회사 전 분야에 걸친 근원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44조 원, 영업이익 5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대내외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격차'를 내세웠다. 그는 "가전, 스마

트폰 사업은 혁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품 사업은 개발·제조 역량을 더욱 강화해 초격차를 확보하는 등 체질개선을 통한 내실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은 신사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사업기회를 선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했으며, 분기 배당을 포함해 연간 9조6000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의 사회공헌 비전 아래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눔과 상생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 구현에도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주와 기관투자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주주총회에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 의결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참석자가 2배 이상에 달해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3건의 안건은 모두 표결 대신 주주들의 박수로 사실상 만장일치 승인됐다. 송영록 기자 syr@



〈SK 수석부회장〉

최재원, 전기車 배터리로 ‘아메리칸 드림’ 이룬다

美조지아주 생산공장 기공식

“훗날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은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한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국과 전 세계 자동차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역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기공식에서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자동차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날 최 수석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50여 년간 화학산업을 선도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K이노베이션은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며 “SK는 최고의 기술을 갖춘 글로벌 ‘톱티어(최고)’ 회사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05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후 ‘선(先)수주, 후

총 1.1兆 연도별 분할 출자
2022년부터 9.8GWh 양산

‘先수주·後증설’ 전략 토대로
유럽 등 생산거점 확보 속도전

“글로벌 톱3 업체로 도약할 것”

(後)증설’ 전략에 따라 국내(충남 서산)와 유럽, 중국 등에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생산거점 중 마지막으로 낙점한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앞으로 공격적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SK의 미국 배터리 공장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만들어 낸 결과”라면서 “이번 프로젝트처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양국 모두에 필요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조지아 공장은 건설 투자비, 운전자본 등 총 1조1396억 원(10억 달러)이 연도별 분할 출자 형태로 투자될 예정이다. 조지아 공장은 충남 서산공장 생



SK이노베이션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티에서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첫삽쓰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산량의 두 배가 넘는 9.8GWh 규모로 2021년 하반기 완공, 2022년 초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누적 기준 약 1조9000억 원(16억7000만 달러)을 투자해 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배터리 톱3 업체로 도약할 방침이다. 현재 누적 수주 잔량은 지난해 말보다 100GWh 늘어난 430GWh로 관련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2022년까지 연간 6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생산력 측면에서도 톱티어 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번 기공식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신뢰를 더욱 확실히 하게 됐다”며 “이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답체인지 2.0을 완성할 기반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공식에는 월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 등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계자와 한국 정부 인사, SK 경영진, 고객사와 협력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박용만 회장 “기득권 타파·규제 개혁... ‘산업화 열기’ 조성해야”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산업화 초기의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 받고 있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을 걷어 내고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져 우리가 처음 산업화하고 개발에 불을 지필 때 같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기업 역동성, 나라 살림 좌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역동성은 경제의 외연을 늘리고, 삶의 터전을 꾸리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업규제가 여전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영환경도 어려워졌다는 점을 애도했지만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박 회장은 기업인들의 자성을 요구하



기도 했다. 박 회장은 “우리 상공인들은 대단히 숨 가쁘게 달려왔고 서구에서는 300년 걸려 이룬 산업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냈다”며 “오늘만큼은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금만 마음은 뒤로하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상공인들 스스로가 미숙한 부분은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성숙한 기업 문화와 규범을 세우고 솔선해서 지키는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들께 다시금 박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상공의 날 기념식’은 경제발전의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공업 발전을 다짐하는 경제계 주요 행사다.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국내 기업인을 비롯해 재외 상공인, 주한 외국 기업인 등이 참석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공영은 현대차 사장, 서민석 통일방직 회장 등 국내외 상공인 및 근로자 6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 회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에는 이날 연 국무총리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총리는 “기술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올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 출시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선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상 강화를 통해 수출길을 넓히고 수출 물품과 시장의 다변화로 수출활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제12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를 축하드립니다

2020년 제13회 아산의학상 추천 안내



마이크로 RNA와 RNA 교리의 조절 원리를 밝혀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김빛내리 교수



뇌졸중 환자의 뇌혈관 질환 특성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한 김종성 교수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 인자를 규명한 한범 교수



시신경 영상을 이용해 녹내장의 발병기전을 규명하고, 치료지침을 수립한 이은지 교수

● 시상내용

시상부문	기초의학	임상의학	젊은의학자
인원	1명	1명	3명 이내
상금	3억원	3억원	각5천만원

● 추천 가능하신 분

-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학병원, 대학교의 장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19년 9월 6일(금)
- 접수처 : (우)0550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아산재단 아산의학상위원회
(02)3010-2585 / www.asanfoundation.or.kr

※ 자세한 사항은 아산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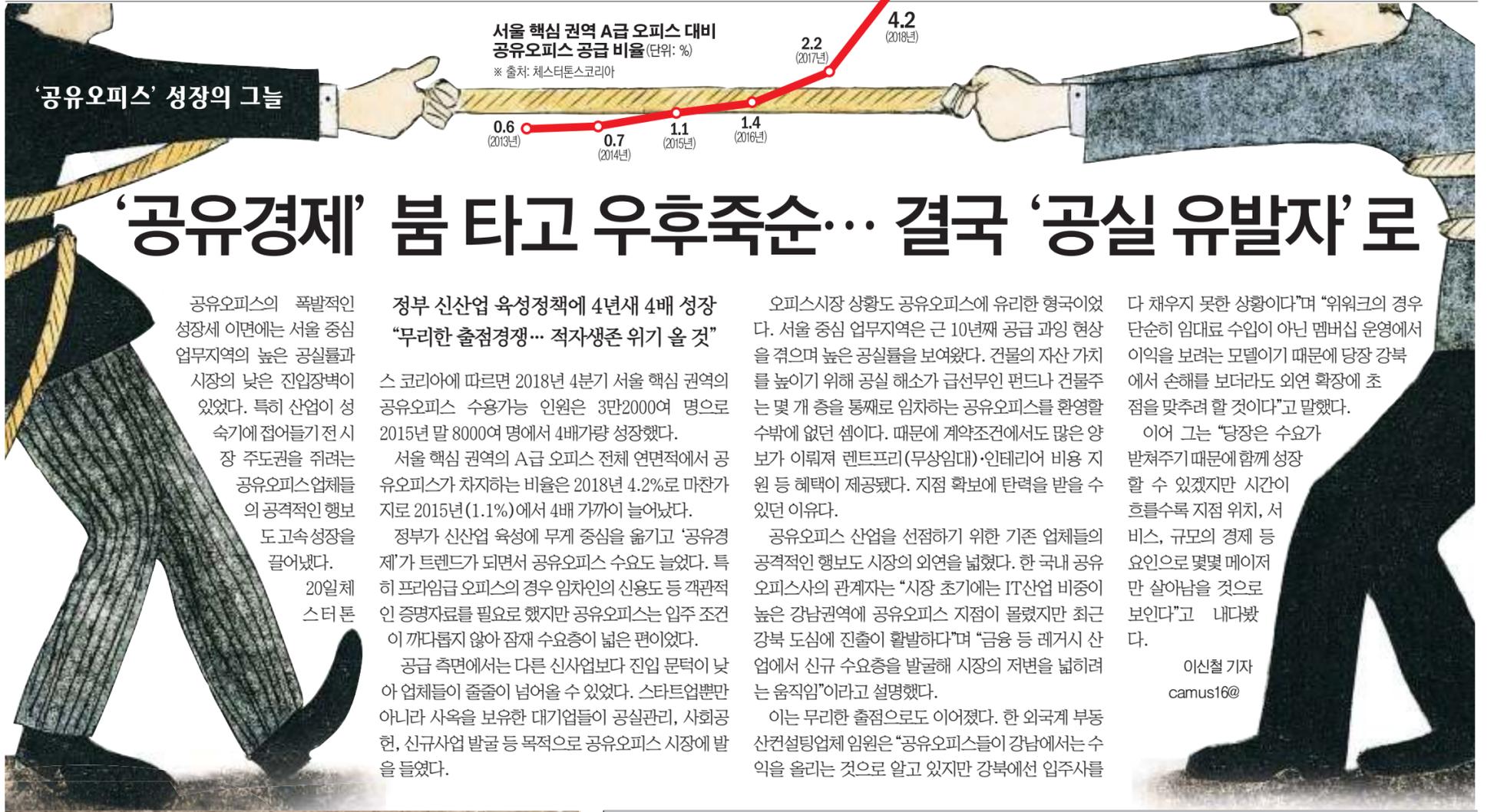
제12회 아산의학상 시상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후6시 ●장소 : 그랜드 히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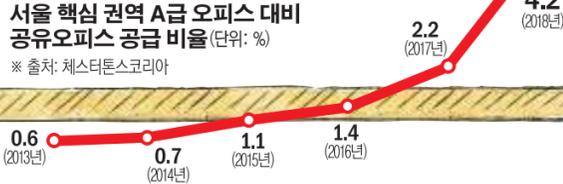
- 기초의학부문 : 김빛내리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 임상의학부문 : 김종성 교수 울산대 의대 신경과학교실
- 젊은의학자부문 : 한범 교수 서울대 의대의과학과 이은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아산사회복지재단



‘공유오피스’ 성장의 그늘



‘공유경제’ 붐 타고 우후죽순... 결국 ‘공실 유발자’로

공유오피스의 폭발적인 성장세 이면에는 서울 중심 업무지역의 높은 공실률과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이 있었다. 특히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 시장 주도권을 쥐려는 공유오피스업체들의 공격적인 행보도 고속성장을 끌어냈다.

20일체스터톤

정부 신산업 육성정책에 4년새 4배 성장 “무리한 출점경쟁... 적자생존 위기 올 것”

스 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서울 핵심 권역의 공유오피스 수용가능 인원은 3만2000여 명으로 2015년 말 8000여 명에서 4배가량 성장했다.

서울 핵심 권역의 A급 오피스 전체 연면적에서 공유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2%로 마찬가지로 2015년(1.1%)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공유경제’가 트렌드가 되면서 공유오피스 수요도 늘었다. 특히 프라임급 오피스의 경우 임차인의 신용도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필요로 했지만 공유오피스는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잠재 수요층이 넓은 편이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다른 신사업보다 진입 문턱이 낮아 업체들이 줄줄이 넘어올 수 있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육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공실관리, 사회공헌, 신규사업 발굴 등 목적으로 공유오피스 시장에 발을 들였다.

오피스시장 상황도 공유오피스에 유리한 형국이었다. 서울 중심 업무지역은 근 10년째 공급 과잉 현상을 겪으며 높은 공실률을 보여왔다.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실 해소가 급선무인 편이나 건물주는 몇 개 층을 통째로 임차하는 공유오피스를 환영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때문에 계약조건에서도 많은 양보가 이뤄져 렌트프리(무상임대)·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됐다. 지점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던 이유다.

공유오피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공격적인 행보도 시장의 외연을 넓혔다. 한 국내 공유오피스사의 관계자는 “시장 초기에는 IT산업 비중이 높은 강남권역에 공유오피스 지점이 몰렸지만 최근 강북 도심에 진출이 활발하다”며 “금융 등 레거시 산업에서 신규 수요층을 발굴해 시장의 저변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리한 출점으로도 이어졌다. 한 외국계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원은 “공유오피스들이 강남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북에선 입주사를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며 “위워크의 경우 단순히 임대료 수입이 아닌 멤버십 운영에서 이익을 보려는 모델이기 때문에 당장 강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점 위치, 서비스, 규모의 경제 등 요인으로 몇몇 메이저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서울 핵심권역 대형오피스 공실률 추이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심(GBD)	6.1	17.4	8.4	6.8	12.9	14.2
강남(YBD)	4.3	12.9	9.3	4	9.8	9.9
여의도·마포	7.9	12.3	13	13.7	14.3	15.1
서울	5.8	6.7	10.1	8.7	11.5	12.3

* 출처: 한국감정원

서울 핵심 권역별 공유오피스 수용가능 인원 수 (단위: 명, 2018년 4분기 조사 기준)



M&A 불발뎀 영업기밀만 누설한 꼴인데...

“대우조선 어디까지 오픈할까” 현대중 vs 산은 ‘실사 신경전’

공정위·경쟁당국 승인 등 첩첩산중 인수불발 가능성에 공개범위 골머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내달 초 인수합병(M&A)을 위한 현장실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최종 합병 승인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어느 수준까지 현대중공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가 관건이다. 자칫 합병이 무산될 경우 경쟁사에 영업 기밀을 날라야 보여준 대우조선해양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 산업은행도 실사 범위 조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산업은행 영남지역본부 기자 간담회에서 “내달 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대중공업은 실사를 위해 유관 팀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와 회계, 기술력·연구개발·영업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원가구조(회계)의 경우 영업기밀과 직결돼 대우조선해양 노조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노조는 ‘실사저지단’까지 구성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병이 결정될 때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경쟁당국 승인이란 관문들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합병 반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합병 무산 가능성은 커진다.

실제 경쟁당국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사례도 많다. 지난해 8월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인수하려 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핀란티에리와 STX프랑스 간 합병 과정에서, 크루즈선 시장 독점을 우려한 탄원서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전달되면서 현재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이와 같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정부의 과한 조선 지원’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이 압축다. 또 양사 합병 시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0%를 넘게 돼, 독과점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법적으로 인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혹시라도 향후 매각이 불발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영업 기밀을 가감없이 노출한 대상인 경쟁사와 또 다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또 M&A 작업이 늦어질수록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 제고, 수주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2016년 7월, 공정위의 불허로 8개월가량 끌어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무산되면서 CJ헬로비전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실사 범위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시점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www.ihoban.co.kr

HOBAN SUMMIT VERTIUM

호반그룹 30주년을 맞아
서초 신사옥으로 입주하고
CI와 BI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2019년 총 20,000여 세대 분양예정

<p>호반써밋 송도 2,671세대 (아파트, 아파텔, 상업시설)</p> <p>3월말 오픈 예정</p>	<p>더라움 펜트하우스 : 357세대 (58~74㎡) 자양 12구역 : 305세대 (40~84㎡) 인천 청라 6차(A3) : 210세대 (84㎡) 송파 위례 3차(A1-2) : 689세대 (108㎡) 송파 위례 5차(A1-4) : 700세대 (108~140㎡) 서울 신정2-2 : 407세대 (39~84㎡) 시화 MTV공동2 : 580세대 (59~84㎡) 평택 고덕A22 : 658세대 (84~112㎡) 평택 고덕A43 : 766세대 (84㎡)</p>	<p>인천 영종하늘 A47 : 537세대 (74~84㎡) 오산 세교 A2 : 873세대 (75~101㎡) 당진 수청2 RH1 : 1,084세대 (84㎡) 당진 수청2 RH2 : 1,001세대 (84㎡) 인천 검단 2차(AA1) : 720세대 (72~107㎡) 대전용산 4개 블록 : 총 3,582세대 (59~84㎡) 아산탕정산단 5개 블록 : 총 3,534세대 (59~84㎡) 인천 연희공원 : 1,860세대 (59~84㎡)</p>
--	--	---

HOBAN 그룹사

HOBAN (호반건설)	HOBAN (호반건설)	HOBAN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덕산 스파캐슬/안면도 오션캐슬, 제주 중문 퍼시픽랜드)
HOBAN (스카이벨리CC/서서울CC/덕평CC/와이레일CC(USA))	HOBAN (호반정학재단/태성문화재단/남도문화재단/KBC문화재단)	
아브뉴프라임 (편교점/광교점/광명점)	kbc 광주방송	코너스투투자파트너스 (신기술투자금융)
		Plan.H (정일 지원)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광고에 표시된 분양일정 및 규모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원인”... 수조원대 보상 불가피

정부연구단 결과 발표
 지하 4km 깊이 시추 과정에서 지층속 토양 유실되면서 촉발 미소지진 이후 5.4급 발생 “자연지진 아닌 사실상 人災” 정부 “지열발전소 영구 중단”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연 지진이 아니라 사실상 인재로 결론 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포항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5조 원대의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항 지진은 지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서 지층 속 토양이 대거 유실되면서 촉발된 것”이라며 “그간 지열발전소에 의해 다섯 번의 주요 지층 자극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강근 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은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이곳에 유체를 주입하며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며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도가 됐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정부가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축한 발전소다. 넥스지오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작년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일 위자료 5000~1만 원을 청구했다. 본부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포항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총 소송금액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경솔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손해배상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조속하게 원상복구하겠다”며 “또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 선정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포항 시민이 조사단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포항 지진 불뚱 튼 ‘울릉도 에너지 자립 사업’

지열발전 연관성 불거진 후 사업 멈춰... 인천 덕적도·전남 조도 사업도 차질 예상

지열발전이 2017년 포항 지진의 ‘주범’이라는 정부 조사의 불뚱이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으로 튀었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사업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섬 사업자인 ‘울릉에너지피어’ 주주들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사업 청산을 심의한다.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핵심인 지열발전 사업이 정부 조사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포항 외) 여타 지열발전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전과 경상북도, 울릉군 등 대부분이 청산에 찬성하고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적자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울릉 에너지피어의 영업 적자는 58억 원이 넘는

다.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울릉도 전역의 모든 에너지원을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사업사 울릉에너지피어는 한전과 LG CNS, 경상북도, 울릉군 등이 2014년부터 총 171억 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산업부 등 정부 부처도 ‘에너지 신산업의 결정체’라며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힘을 실었다.

에너지 자립섬 계획의 핵심이 지열발전이었다. 섬 전체 에너지원(19.2MW)의 63%(12MW)를 지열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게 한전 등의 구상이었다. 때문에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간 연관성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여기에 사업 시작을 전후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주주사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울릉도에서 지열발전 사업은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 청산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발전원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진이 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이 사실상 좌초하면서 인천 덕적도, 전남 조도 등 다른 에너지 자립섬 사업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사업이 국내 에너지 자립섬 사업 중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산업부 등도 화석연료 완전 대체에서 신재생에너지와의 비중을 조정하는 쪽으로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초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작년 25.7만쌍 결혼... 혼인율 사상 최저 20·30대 실업·주거난에 미루거나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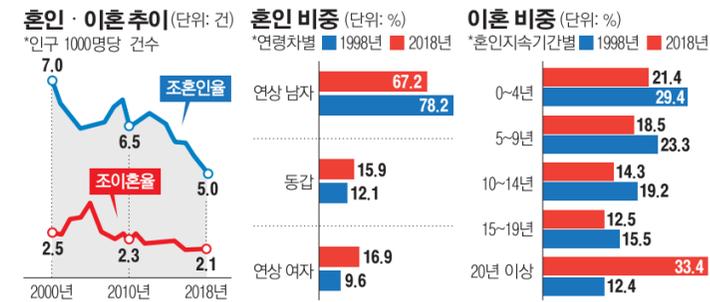
황혼 이혼 탓 이혼율 2.5% ↑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7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의 혼인 건수와 혼인율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7600건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5.0건으로 0.2건 줄었다. 혼인 건수는 1972년 이후, 조혼인율은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혼인 연령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라갔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2.1세 높아졌다. 같은 이유로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이후 40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단만혼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20대와 30대 초반의 혼인 감소세가 가파르다. 연령별 혼인 건수를 보면, 남자는 20대



초반(-13.3%)과 20대 후반(-3.4%), 30대 초반(-5.4%)에서, 여자는 20대 초반(-8.4%)과 20대 후반(-3.5%), 30대 초반(-3.5%)에서 급감했다. 혼인율도 남자는 20대 초반(-11.4%)과 20대 후반(-6.5%), 여자도 20대 초반(-7.1%)과 20대 후반(-5.9%)에서 크게 줄었다.

20·30세대의 혼인 건수 및 혼인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이 연령대 인구 감소와 높은 결혼비용 등이 꼽힌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5~29세 실업률이 2008년에는 6.0%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9.5%로 상승했다”며 “지난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8.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가격지수가 2008년 71.9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3.1로 주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던 이혼 건수는 지난해 2.5% 증가로 전환됐다. 황혼 이혼이 급증한 탓이다. 혼인 지속 기간별로 20년 미만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5~29년은 8.1%, 30년 이상은 17.3% 급증했다. 김 과장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유교주의적 사고에 의해 ‘빈둥지 세대’에서 자녀를 독립시킨 이후까지 (이혼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IMF ‘완화적 통화정책’ 권고 거부한 금통위원

이일형 “금융 불균형 높다” 잠재성장 달성 시 금리인상 시사

이일형(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완화적 통화정책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 리스크 잠재 가능성이 주요 선진 7개국(G7)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을 감안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경우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의 최근 권고에 대해 “(IMF가)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짚은 것은 IMF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거시경제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앞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반면 잠재성장률은 구조

적 요인에 의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거축통화국으로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상황에서 금융자산은 선진국 중 발달된 국가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금융자산을 확대했던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겪었던 사례에서 보듯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줄고 있지만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기준 미달 미세면지 마스크 판매

미세면지 포집 효율이 기준보다 낮은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미세면지마스크 20개(KF80 10개, KF94 10개)를 대상으로 성능을 조사한 결과 1개 마스크가 면지를 걸러주는 비율인 본진 표집 효율이 기

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와이제이씨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다. KF94 마스크는 염화나트륨과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 본진 표집 효율이 94%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스크의 효율은 86~88%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조만간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문 대통령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 쏠 부처로 확산시켜라”

홍남기 부총리 보고 받고 지시
기재부 ‘9조+α 추정안’ 곧 마련
“일자리 등 가시적 성과 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기획재정부가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정부입증)을 통해 상당한 규제 효과 효과를 거뒀으며 타 부처로 조기 확산시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편 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은 올해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간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이다.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입증하게 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로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과 추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투자 부진과 관련해 서도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요 경제 현안 보고에 앞서 얘기하고 있다. 뉴스

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IMF(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 약 9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세먼지 추경과 일자리·민생 추경이 편성된다면 추경 규모는 9조 원+α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동민 기자 lawsdm@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지명

헌재 여성 비율 30% 넘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지명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신동민 기자 lawsdm@

‘패스트트랙’ 놓고 바른미래당 내홍

바른당-국민의당 출신 충돌... 여야 4당 공조에 ‘빨간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내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이들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당론 의결을 거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당 출신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속히 통과시키자”(이찬열 의원), “선거법과 2개 법안 연계도 가능하다”(주승용 의원) 등 김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지고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 협상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단식까지 하며 선거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제도와 개혁법안을 연계하는 데 반감을 드러낸 상태에서 여야 공조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최저임금 인상 탓 자영업자 매출 20% 급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점포는 매출이 늘어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한나라당 의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000만 원 이하 영세점포의 1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4%나 급감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1억 원 점포는 5.4%, 1억~2억 원 점포는 1.4% 줄었다. 하지만 5억~30억 원 점포는 0.7%, 30억~50억 원 점포는 1.5%, 100억~500억 원 점포는 5.5%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인건비 증가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줄이자 영업시간이 그대로인 주요 상권의 대형점포가 예상치 못하게 반사이익을 얻었다”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전용콘솔 없이도 유튜브로 게임 즐긴다” ‘게임 빅3’에 도전장 던진 구글

구글이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닌텐도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MS) 3강 구도였던 세계 게임 시장에 인터넷 공통 구글까지 받을 들임으로써 경쟁 구도에 격변이 예상된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스테디아(Stadia)’를 연내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스테디아는 전용 게임콘솔이 없어도 TV나 PC, 스마트폰 등 화면이 달린 다양한 기기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조다.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고급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스트리밍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테디아는 모두를 위한 게임 플랫폼”이라며 “우리는 컴퓨터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가 있다. 스테디아는 초당 60프레임의 4K 동영상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디아 같은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소니와 MS도 이미 자사 콘솔을 이용한 클라

스트리밍 플랫폼 ‘스테디아’ 공개 MS 포함한 3강구도 ‘지각 변동’ 닌텐도 3.2%·소니 3.4% 주가 폭



필 해리스 구글 부사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GDC에서 자사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스테디아’를 소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연합뉴스

우드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경쟁력은 유튜브와 같은 자사의 다른 서비스와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게임 사업을 이끌

고 있는 필 해리스 부사장은 이날 무대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게임 시작’ 화면을 클릭, 5초 만에 게임이 재생되는 장면을 시연했다.

다만 FT는 아직 구글과 정식 계약을 맺은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글이 히트작들을 스테디아로 끌어들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미 100개 이상의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사에 개발 키트를 보냈으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글은 직접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체 게임 스튜디오인 ‘스테디아게임 & 엔터테인먼트’도 설립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리서치 업체 뉴주(Newzoo)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2018년 1349억 달러(약 153조 원)에 달했으며 오는 2021년에는 그 규모가 1801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지이신문은 지금까지 게임시장은 하드웨어를 지닌 닌텐도와 소니, MS 등 3강 구도였지만 ‘탈 하드웨어’를 지향하는 구글의 진출로 업계 경쟁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 일본증시에서 닌텐도 주가는 3.21%, 소니는 3.38% 각각 떨어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하늘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

주요 도시 ‘크레인 숫자’로 경기 진단… ‘타워크레인 지수’ 개발

하늘을 보고 경기를 진단한다?

뉴욕타임스(NYT)는 건설 현장에서 있는 장비로 경기를 진단하는 미국 건설 컨설팅 회사 라이더레벨트(RLB)의 일명 ‘RLB 크레인지수’를 19일(현지시간) 소개했다. 2015년 개발된 이 지수는 북미 13개 주요 도시의 타워크레인 총합을 바탕으로 산출, 소비자신뢰지수나 주택착공 같은 경제지표로 활용된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미국 건설부문의 고용 인력은 746만 명이었다.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6년 769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최근 타워크레인 지수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겨울 타워크레인 지수는 423이었다. 2015년의 439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LB에 따르면 미국에서 크레인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시애틀(59)이다. 캐나다의 토론토가 104로 가장 높았다. 팔찌는 5개에 불과한 미국 피닉스가 차지했다.

미국에서 시애틀이 ‘크레인 지수’ 1위를 수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 덕분이다. 2010년 아마존이 본사를 시애틀로 이전한 후 한 때 버려진 공업지대였던 시애틀은 오피스 밀집 지역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시애틀에 빌딩 33채를 지어 ‘아마존 캠퍼스’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일하

는 직원만 4만 명에 달한다.

‘크레인지수’도 한계는 있다. 크레인 지수는 RLB의 사무실이 있는 도시들만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 애틀랜타처럼 시장이 활발한 도시는 제외됐다. 또 크레인지수는 10~80층 건물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만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뉴욕대학 부교수 지안 루카 클레멘티는 “미국 대도시는 지금이 건설 황금기다. 같은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은 아직 도시화가 덜 됐다. 더 많은 건설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크레인지수 외에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는 여럿 있다. ‘버터팝콘지수’, ‘슈퍼볼지수’, ‘하이힐지수’, ‘쿠폰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버터팝콘지수는 불황기일수록 소비자들이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며 시름을 잊으려한다는 데서 비롯했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하이힐을 신는 여성이 많아진다는 데서 착안한 하이힐지수, 경기 침체기일수록 비싼 위자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생겨난 이혼율지수도 등장했다.

컬럼비아대 경제학과의 자그디시바 그와티 교수는 “복잡한 경제를 단순한 현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소재는 사람들이 경제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펠레 ‘10번’ 유니폼 받고 흐뭇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남미의 펠레’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으로부터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건네받으며 흐뭇해하고 있다. 유니폼에는 브라질 축구선수 펠레의 등 번호인 ‘10’ 위에 ‘트럼프(TRUMP)’라고 적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등 번호 ‘19’에 ‘보우소나루(Bolsonaro)’라고 새겨진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전달했다. 이날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10년後엔 AI가 인간 일자리 차지” 라쿠텐 회장 “직원들, 코딩 배워라”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전 직원에게 ‘코딩’ 능력의 의무적으로 갖추라고 주문했다. 10년 전 영어가 사내 공용어로 지정된 후 영어 공부에 매진해온 직원들은 초급 이상의 코딩 능력까지 갖춰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미키타니 회장은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도요자동차에서 근무한다면 자동차의 작동 방식, 즉 엔진과 서스펜션 기본 구조 등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보·기술(IT) 회사에 근무한다면 컴퓨터 기초 지식은 필수”라며 코딩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키타니 회장의 방침에 따라 1만 7000여 명의 라쿠텐 직원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조,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 반도체(GPU)의 차이 등 초급 이상의 코딩 능력을 갖춰야 한다.

라쿠텐은 지난해 약 260명의 비(非) IT 계통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과정을 마련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작성과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축 등의 기본 기술을 배웠다. 올해 4월 입사하는 400명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는 3개월의 연수 과정이 있다.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

라쿠텐은 교육을 전사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은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키타니 회장은 “10년 후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인간이 하는 서비스 대부분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것이다. 관리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의무화한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쿠텐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12년 사내 영어 공용화를 시행했다. 직원들은 좌천 불안감에 시간을 쪼개 영어를 배우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라쿠텐 직원들의 영어 시험 성적은 일본 평균을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트럼프 ‘보잉사태’ 뒷북... 새 FAA 청장 14개월 만에 지명

구원투수에 델타항공 전 부사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잉 737맥스 8 여객기의 잇따른 추락사고 파문에 14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연방항공청(FAA) 수장을 뒤늦게 서둘러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종사 출신으로 델타항공 부사장을 역임한 스티븐 디슨(사진)을 신입 FAA 청장으로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FAA는 마이클 후에르타 전 청장이 5년 임기를 마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대니얼 옐웰 부청장이 청장 대행 역할을 맡아왔다.

보잉 737맥스 여객기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와 올해 3월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추



FAA의 관리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디슨을 FAA의 신입 청장으로 앉히면서 광범위한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슨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 FAA 청장에 오르게 된다.

락하면서 보잉은 물론 FAA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미국 연방경찰과 교통부가 FAA의 비행기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간 상태.

디슨은 지난해 10월 델타항공에서 퇴임했으며 최근 수개월간 백악관으로부터 청장직 임차 여부 검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에티오피아에서 지난 10일 737맥스 여객기가 추락하고 나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문제의 기종에 대한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FAA는 운항 중단 판단을 뒤늦게 내리는 등 늦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lifepius.co.kr/lifemeetslife
라이프플러스 웰니스 키트를 만나보세요.



L I F E
P L U S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안정을 거듭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 가치 있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삶을 마주하는 금융을 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한화생명

LIFEPL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평균수명 男 83.5세·女 88.5세로 늘어... 생보업계, 보험상품 대수술

'새 경험생명표' 내달 적용

생명보험 업계가 다음 달부터 바뀌는 새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본격적인 손익계산에 돌입했다. 생명보험사는 평균 수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경험생명표에 맞춰 보험료 조정부터 상품 중단 후 상품 재출시까지 다양한 세부 조율에 돌입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9회 경험생명표는 남성과 여성 평균수명이 각각 83.5세와 88.5세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발표한 8차 경험생명표보다 각각 2.1세와 1.8세 늘어난 수치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상품은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위험률을 산출해 설계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사실상 전 상품 재계리가 필요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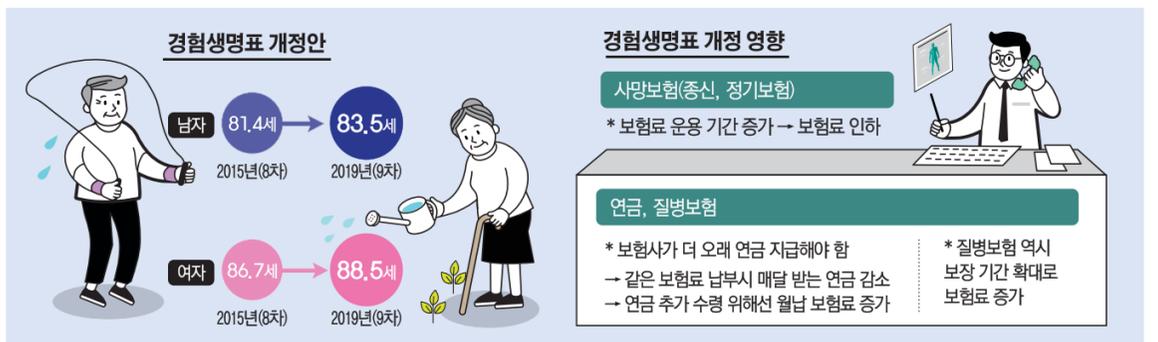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험생명표에 따라 수명이 늘어나는데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장 부분은 보험료가 내려가고 다른 분야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명

위험률 반영 상품 재계리 추진 치매 등 질병 보험료 인상 가능성 금감원 "절판 마케팅 예의주시"

이 늘어나면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늘어나 평균 남부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반대로 연금보험은 더 많이 지급해야 해 보험료가 오른다.

새 경험생명표 적용은 최근 급상승 중인 치매 보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화생명명은 1월부터 판매한 치매 보험을 이달 말까지만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병간호비 종신 보장을 앞세워 최근까지 11만 건 이상을 계약한 인기상품이다. 하지만 기존 상품은 이달 말까지 판매하고 새 보장 내용을 담은 치매 보험을 다음 달부터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개정 절차에 들어가고 보장 내용 변경이나 회사 전략상 판매를 낮추기 위해 보장을



낮추는 등 (변동 사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기존 치매 상품의 높은 손해를 때문 아니냐는 의견에는 "판매한 지 두 달밖에 안 돼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료 인상 폭은 새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상품이 출시돼야 알 수 있다. 다만 2009년 제6차 경험생명표 변경 당시 금융감독원은 질병보험 보험료가 최대 11%가량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시 참조위

험률이 변경돼 사망보장(종신·정기보험) 보험료는 약 11%가량 하락하고 암보험과 질병 보험, 연금보험료는 6.4~11.1% 인상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수명 증가 역시 위험률 하락과 유사한 효과를 내므로 다음 달부터는 치매 보험을 포함한 질병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험설계사는 다음 달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을 중심으로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하지

만 큰 폭의 보험료 변동 가능성은 미비하고 각 보장 담보마다 받는 영향이 달라 같은 보험이라도 수술비와 입원비 등 세부 분야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장 절판 마케팅 과열 양상은 확인되지 않지만, 상시 모니터링 중이므로 특이사항 확인 시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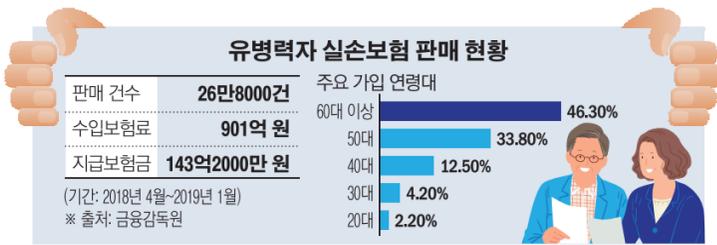
정용욱 기자 dragon@

'有병력' 실손보험 가입자 80%는 '5060'

10개월간 총 27만건 판매 60대 이상 가입자 46% 최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나 병을 앓은 이력이 있어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힘든 소비자가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선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 현황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수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시됐다. 고혈압으로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지



만 완치된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심사를 완화하고 가입 가능 나이를 최대 75세로 확대했다.

심사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실손보험은 18개 항목을 조사했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6개만 심사한다. 또 치료 이력은 2년(기존 5년)으로 줄었고 5년 이내

중대질병 발병 여부도 암에 국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총 26만8000건 판매됐다. 총 11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며 지난해 4월 약 5만 건 판매 이후 월 2만 건씩 계약되고 있다.

가입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46.3%로

가장 많았다. 50대도 33.8%에 달해 5060세대가 전체 가입자의 80.1%를 차지했다.

총 수입보험료는 901억 원(손해보험사 776억 원, 생명보험사 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43억 원 규모였다. 현재 상품 판매 초기임을 감안하면 지급보험금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3년이 경과한 뒤부터 지급보험금 추세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한銀-포스코건설-서울보증 상생 협력 대출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은 포스코건설,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생 협력 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대기업, 보증보험사, 은행이 전산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포스코건설의 '상생 대출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정보가 서울보증보험에 전송되고, 서울보증보험은 계약 내용과 업체 신용도를 심사한 후 신한은행에 '전자 상생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송한다. 최종적으로 신한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송한 전자보증서를 담보로 '신한 협력기업 선금지원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www.douzone.com
DOUZONE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휴산, 육아 고민 등 직면 복지 문제까지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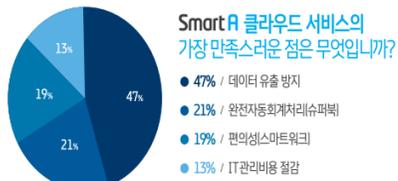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문의 1688-5000



삼성 “차량용 반도체 등 초격차로 中 추격 따돌린다”



출 선 주주들 2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총회장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총회 대표 3인 對중국 전략

삼성전자 경영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의 추격'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반도체 굴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 중소형 TV 시장 공략 등 중국의 공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초격차·프리미엄 전략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대표 3인이 내놓은 中 추격해법은 =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부문별 경영현황을 발표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김기남 반도체·부품(DS) 부문장(부회장)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둔화와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차량용 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반도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대표 발언

김기남 부회장
반도체·부품(DS)

김현석 사장
소비자가전(CE)

고동진 사장
IT·모바일(IM)

“中 반도체 굴기, 끊임없는 연구 통해 극복”

“中 TV 공략, 방관하지 않아... 차별화 대응”

“中 조직·사람·유통채널 모두 바꿔... S10·A 시리즈 반응 좋아”

반도체 투자 못지않게 기술 확보 중요해 ‘위기 속 기회’ 가전 초대형 TV 라인업 확대 모바일 中 갤럭시10 기기개

체 산업은 어느 정도 자본을 투자하느냐 못지않게,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중요하다.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석 소비자가전(CE) 부문장(사장)에게는 프리미엄 이외의 TV 라인업에서 중국 로컬 TV의 추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프리미엄 전략을 써오면서 프리미엄 TV 75인치 이상에서 65~70%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중국 업체는 75인치 이하 작은 사이즈 중심으로 많은 해

의 국가에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인치에서 98인치까지 8K TV 풀 라인업을 갖출 것”이라며 “초대형 TV는 기존 75인치와 82인치에서 98인치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고, QLED TV 라인업의 절반을 초대형으로 구성해 ‘초대형은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IT·모바일(IM) 부문장(사장)은 중국 시장 전략을 묻는 주주의 질문에 “중국에서 2년 동안 힘들었는데, 조직과 사람, 유통채널 모든 걸 다 바꿨다. 조심스럽지만 갤럭시S10의 중국 반응이 굉장히 좋다. 플래그십 뿐 아니라 중가모델인 갤럭시

시A 시리즈 역시 중국 반응이 좋다”고 답했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액면분할 후 첫 주총·주주 1000명 몰려 = 액면분할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주주총회에는 주주, 기관투자자 등 지난해보다 참석자가 2배 이상 늘어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부 소액주주가 장시간 대기한 데 대해 경영진을 비롯한 회사 측에 강한 어조로 항의하면서 주총은 지난해보다 다소 길어진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액면분할 전후로 삼성전자의 주주 규모가 작년 3월 말 기준 약 24만 명에서 현재 78만여 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소가 협소해 입장이 지연되는 등 주주님들께 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장소와 운영 방식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철저히 준비해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지난해 초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경영 보복을 낚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이상훈 사장은 참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SDS “올 M&A 적극 추진...혁신적 성장”

홍원표 대표, 주총서 밝혀 AI 등 4대 전략사업 강화

홍원표(사진) 삼성SDS 대표는 20일 “올해 경영방침을 ‘대외사업 확대를 통한 혁신적 성장’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회사 비전인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Data-driven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를 더욱 공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4가지 중점 추진 사항으로 △대외·해외사업 확대 △글로벌 사업수행 체계 정립 △신기술 기반 고객 IT혁신 선도 △물류 운영 고도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SDS는 4대 전략사업 분야의 인수



합병(M&A)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홍원표 대표는 “IT 서비스 4대 전략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인텔리전트 팩토리 △인공지능(AI)·데이터분석 △클라우드 △솔루션 등 4대 전략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31% 성장하며 사상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와 사업 제휴를 통해 대외 및 해외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는 “2년 전부터 4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며 “M&A

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사업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M&A는 제대로 기술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경영진이 많은 회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 삼성SDS는 홍원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 한도액, 1주당 2000원 배당금 승인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0조342억 원, 영업이익 8774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19.9% 늘어난 수치다.

김우람 기자 hura@

두산중 1.6조 인니 발전소 수주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IRT(PT. Indo Raya Tenaga)와 자와(JAWA) 9, 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국영 건설업체인 HK와 컨소시엄을 이뤄 거둔 성과”라며 “총 공사비는 약 1조9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 수주 규모는 1조6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발주처인 IRT는 인도네시아 전력청 자회사 인도네시아 파워와 발전 및 석유화학 전문기업 바리토 퍼시픽(PT. Barito Pacific) 그룹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자와 9, 10호기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20km 떨어진 자바섬 서부 칠레곤 지역에 건설된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환경기준(IFC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초초임계압(USC) 방식의 1000MW급 2기를 제작해 공급한다.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2024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포스코, 신형 코란도 판촉 나선 까닭은

개발부터 고장력 강판 협업

포스코가 쌍용자동차와 함께 8년 만에 새단장한 ‘뉴:티폴 코란도’ (사진) 흥행을 위한 판촉 확대에 나섰다.

포스코는 쌍용자동차와 19일부터 3일간 포스코센터에서 신차 뉴:티폴 코란도 2대를 전시하고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고객사, 공급사 등 전후방 파트너사와 더불어 발전하고 포스코의 경쟁력도 강화시켜 국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Business With POSCO’의 일환이다.

포스코는 쌍용자동차 뉴:티폴 코란도 개발 초기부터 전략적 협업을 통해 차체의 74%에 고장력 강판(340Mpa 이상)을 적용했다. 이 중 초고장력 강판(AHSS, 590Mpa 이상)을 46% 이상



최정우(오른쪽) 포스코 회장과 예병태 쌍용차 부사장이 코란도 앞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쌍용차

적용해 차체경량화를 통한 연비 개선과 신차안전성평가(KNCAP) 충돌안전성 1등급 수준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예병태 쌍용차 부사장과 함께 전시장을 찾아 신형 코란도 시승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언제 어디서나 휴대용 공기청정기 LG전자가 자동차, 유모차, 공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22일 출시한다. 퓨리케어 미니의 포터블 PM1.0 센서는 제품을 세우거나 눕히거나 상관이 없이 크로미세먼지까지 감지한다. 약풍으로 작동할 경우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약 23dB(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사용자는 USB 타입-C 단자를 이용해 간편하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8시간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의 무게는 생수 한 병과 비슷한 530g이다. 화이트,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출하가 기준 30만9000원이다. 필터는 3개 한 묶음 기준 3만 원이다. 사진제공 LG전자

현대제철 도금강판 美 반덤핑 관세 해소

2016년 48%→2019년 0%

미국에 도금강판을 수출하면서 한때 50%에 육박한 관세를 댔던 현대제철이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확정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 47.8%, 동국제강 8.75%, 기타 업체 28.28%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보고 기존에 적용했던 AFA를 철회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대미 도금강판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S전선 '국가별 맞춤 전략' 통했다

통신 느린 유럽엔 통신선 법인... 전력 수요 많은 동남아엔 전력선 공장

나라마다 부족한 인프라 공급
佛 법인 지난해 1300억 수주
폴란드선 배터리 부품 생산도

LS전선이 올해 국가별 맞춤 경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이를 위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20일 LS전선에 따르면 우선 전력망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차별화된 기술을 앞세운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전체 발전의 60% 이상을 아마존강, 파라나강 등을 이용한 수력에 의존하는 브라질에 해저 케이블을 제공한다. 브라질의 전력망 운영 회사인 ISA CTEEP와 계약을 맺고, 브라질 남부 휴양지 산타카타리나 섬에 초고압 해저 케이블과 지중 케이블 약 100km를 공급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규모 해상풍

력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대만에서도 LS전선은 수주를 따냈다. 1월에는 독일의 풍력발전 회사인 wpd사와 계약을 맺고 2020년까지 대만의 원린현 앞바다에 해상 풍력 단지 66kV급 해저케이블 170km를 공급한다.

LS전선은 우리나라에 비해 통신 속도가 느린 유럽에도 진출해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전력 케이블 중심의 영국 판매법인과 별도로 통신 케이블 중심의 판매법인을 프랑스에 설립한 것이다. 프랑스 법인은 작년 1년 동안 약 1300억 원 규모의 통신용 광케이블을 수주했다. 2017년 유럽에서 거둔 수주액(약 50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또 폴란드 공장 일부에 광케이블 설비를 도입, 다음 달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국내와 베트남에 이은 LS전선의 3번째 광케이블 생산라인으로, 연간 약 300만 f.km(파이버 킬로미터)의 제품을 생산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LS전선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미얀마에서 전력 케이블 공장(LSGM) 준공식을 가졌다.

방글라데시에서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차관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억 달러(1130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 방글라데시 전력청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신뢰를 쌓은 후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현지 케이블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 LS전선아시아를 통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LS전선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진다. 2017년 11월 폴란드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전산업체로서는 최초의 유럽 생산법인이다. 유럽 완성차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관련 사업에 본격 진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쏘나타 무인택시 러시아 달린다

모비스·안텍스 개발 MOU
내년 100대 운행 시작으로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 목표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용인 소재 현대모비스 ICT연구소에서 러시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사업자인 안텍스와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국 현대모비스 시장과 아르카디 불로쭌 안텍스 사장을 비롯해 양사의 사업기획과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10여 명의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로보택시와 같은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이에 대한 성능 검증을 마치고 했다. 무인차 플랫폼은 이달 출시를 앞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인 신형 쏘나타를 기반으로 제작한다.

검증된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는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

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전역에 걸쳐 최대 100대까지 로보택시를 운행하면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점차 글로벌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센서들과 제어기를 장착하고, 차량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해당 플랫폼 차량에 대한 소음과 진동 평가, 전파인증 등을 통해 양산 수준의 시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현대모비스의 역할이다.

안텍스는 이렇게 구성된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이를 현재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로보택시를 대체해 실차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음성, 영상 부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설리번은 레벨4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19년 2조 원 수준에서, 연평균 45%씩 급성장해 2030년에는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새로운 내일을 위한, 그들의 뜨거운 함성이 시작된다!

Musical
1976 HARLAN COUNTY
1976 할란 카운티

2019.04.02 ~ 05.05 | 홈익대 대학로 마트센터 대극장



인피니티 QX50 2세대 모델은 엔진 압축비를 제어해 단거리 스프린터의 폭발력과 장거리 마라톤의 효율성을 동시에 선사한다. 또한 차량의 골격인 플랫폼도 초고장력 SHF(Super High Formability) 강판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사진제공 인피니티

힘세고 조용해진 '인피니티 QX50'

엔진 압축비 제어, 고성능·고효율 '두 토끼' 잡아

2세대 완전 변경 모델
차량 골격 더 견고하게

수입차 시장에서 인피니티 QX5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온 인피니티의 중형 SUV, '더 올-뉴 QX50(이하 QX50)'은 다양한 차종의 장점을 두루 갖춘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이 탑재된 VC-터보 엔진과 엑스트로닉(XTRONIC) 무단 변속기(CVT)의 결합은 부드럽으면서도 즉각적인 변속감을 선사한다. 이 차는 최고출력 272마력, 최대토크 38.7kg.m의 성능을 갖췄다.

인피니티 관계자는 "VC-터보 엔진이 첨단 멀티링크 시스템을 통해 엔진의 압축비를 8:1(고성능)에서 14:1(고효율)까지 가변적으로 제어해 단거리 스프린터의 폭발력과 장거리 마라톤의 효율성을 동시에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는 또한 액티브 토크 로드(Active Torque Rod)를 새롭게 적용해 엔진의 진동 및 소음을 저감시켜 4기통 엔진이면서도 6기통 엔진 수준의 정숙성을

구현해냈다. 여기에 차량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새롭게 개발됐다. 초고장력 SHF(Super High Formability) 강판이 세계 최초로 적용돼 보다 견고해졌다.

QX50의 디자인에는 '강렬한 우아함(Powerful Elegance)'이라는 디자인 철학이 반영됐다. 외관에는 인피니티의 시그니처 요소인 초승달 모양의 C 필러, 사람의 눈에서 영감을 받은 LED 헤드램프, 그리고 브랜드 최초로 클램셀 타입의 보닛이 적용됐다. 또한 인테리어에는 울트라스웨이드, 세미 애닐링 가죽 등의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했다.

QX50은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춘 2열 시트로 실내 공간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앞뒤로 최대 155mm까지 이동이 가능해 여유 있는 뒷좌석 레그룸을 자랑한다. 트렁크는 최대 1772ℓ까지 적재할 수 있다. QX50의 판매 가격은 2.0 VC-터보 에센셜(Essential) 5190만 원, 2.0 VC-터보 센서리(Sensory) AWD 5830만 원, 2.0 VC-터보 오토그래프(Auto-graph) AWD 6330만 원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Angel-in-us®

상생형점포 창업설명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CEO를 모십니다

주방기기 금액 **60% 무상지원**,
40%는 리스해 드립니다.



▲엔제리너스의 상생 공동투자 창업 모델의 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

창업설명회 일정

(시간: 오후 2시~4시)

- 대구 2019. 3. 21 (목)
- 부산 2019. 3. 22 (금)
- 대전 2019. 3. 26 (화)
- 광주 2019. 3. 27 (수)

세부 내용은 엔제리너스
점포개발팀으로 문의바랍니다.

02) 708-0437, 708-0425, 708-0434
(홈페이지 참조) www.angelinus.com

택시·IT기업 상생 1호 '웨이고 블루' 시동 걸었다

타고솔루션즈, '카카오T' 통해 서울 지역 100대 운영 개시
목적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승차거부 막아
기사 사납금 없애고 완전월급제... 연내 2만대로 확대 목표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운 택시 서비스 출시에 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웨이고 블루' 서비스를 통해 승차거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고솔루션즈는 20일 서울 성수동 피어59스튜디오에서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T' 출시 간담회를 열고 가맹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웨이고 블루는 국내 택시 사업자와 IT기업이 협력하는 상생 첫 사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택시 사업자와 IT 기업이 함께한 상생의 첫 걸음을 축하했다.

김현미 장관은 "택시 기사들은 장시간 근무와 낮은 수익, 승객들은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웨이고 택시는 50개의 법인택시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이전부터 논의

해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타고솔루션즈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작했다"며 "앞으로 양사의 변화와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웨이고 서비스를 단순히 연결이 아닌 택시 이상의 이동서비스를 경험시키면서 사람들의 이동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만들어온 인공지능 배차시스템·수요예측시스템·자동결제 등 수많은 기술을 지원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고솔루션즈는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승차거부 없고 친절함 고품격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와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를 운영할 수 있는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바 있다. 또



오광원(왼쪽부터) 타고솔루션즈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서울 성동구 피어59스튜디오에서 열린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T' 출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를 추가로 받아 서울시와 이어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웨이고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 배차 서비스다. 승객이 호출하면 주변에 빈 차량이 있을 시 무조건 배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사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콜을 무조건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승차거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기사들의 운행 시간동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콜을 일절 받지않게 설정할 수 있다. 만약 기사가 승객의 콜을 수락한 뒤 취소하게되면 일정부분 페널티 적용도 도입된다.

특히 웨이고 블루를 운영하는 기사들에게는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월급은 주 52시간 근무 기준 약 260만 원 수준으로 택시 수요가 많은 출근 및 심야 시간대에 필수 승무 시간을 지정

해 업무 효율 증진을 도모한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타고솔루션즈는 이날부터 서울 지역에서 웨이고 블루 100대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4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이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연내 2만대로 규모로 운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웨이고 블루는 카카오 T 앱 내 택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T 앱을 실행하여 택시 호출화면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택시 서비스 종류에서 '웨이고 블루'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 이용료는 3000원으로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 요금제가 적용된다. 배차 완료 1분 이후 호출을 취소하면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발표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웨이고 블루를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IT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확실한 정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광원 타고솔루션즈 대표는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승차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카카오의 기술을 이용해 좋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택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TV홈쇼핑도 온라인몰처럼 골라 사세요

SK스토아 'SK스토아 ON' 론칭... '홈쇼핑 한계 극복'
7개 VOD 매장,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쇼핑 가능

SK스토아가 TV 홈쇼핑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앞세워 T커머스 사업 확장에 나선다. 시·공간 제약을 극복해 TV 홈쇼핑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SK스토아는 20일 상암동 KGI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그룹사와 협력해 'SK스토아 ON(온)'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TV와 커머스를 결합한 전자상거래 T커머스는 기존 TV홈쇼핑과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검색해 골라 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TV홈쇼핑은 고정된 채널 안에서 정해진 편성시간 동안 상품을 판매해왔다. SK스토아 온은 기존 홈쇼핑의 틀을 완전히 깼다. 채널 안에 또 다른 VOD 매장 (카테고리)을 구성해 고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TV 안에서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다.

예컨대 SK브로드밴드 Btv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SK스토아(채널 17번)를 틀었을 경우 그 시간에 편성된 방송 상품을 중심으로 전화 주문이 가능했다. 방송 중인 상품 외에는 전화 주문이 힘들었다. TV에서는 상품 방송영상(VOD)을 시청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서 구매할 수도 없었다. 즉, 홈쇼핑에서 편성한 한정된 상품들만 TV를 통해 구매할 수 있었다.

SK스토아 온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진다. SK스토아 방송채널 상단에 전문 VOD 매장(카테고리)인 '트렌드폼', '리빙페이', '인기프로그램' 등 7개의 VOD 매장(카테고리)을 개설해 방송 중인 상품 외에도 시청자가 상품 방송영상을 직접 골라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주문하기 버튼 옆에 검색하기 버튼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처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TV에서 직접 검색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SK스토아는 고객들이 단순히 '보는' TV에서 벗어나 TV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고 즐기는 '나만의 TV 몰'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SK스토아 관계자는 "고객이 SK스토아 채널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청자와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편성하거나 방송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6월 공개

"4억 이용자 기반 블록체인 대중화"... 26개 기업과 파트너십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20일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또 파트너십을 체결한 9개 기업을 추가로 공개했다.

한재선(사진) 그라운드X 대표는 "카카오 유저 5000만 명과 클레이튼 글로벌 파트너사의 유저들 4억 명 기량을 베이스로 한다"며 "이들 모두가 블록체인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일정부분은 유저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하고 기술을 대중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 경험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직관적이고 쉬운 개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수백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뛰어난 성능을 갖춘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다. 클레이튼은 지난해 10월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넷 '아스펜' 버전을 선보인 바 있다. 보안을 거쳐 오는 29일에는 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테스트넷 '바오밥'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테스트기간을 거친 뒤 6월 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바오밥 버전은 지난 5개월 동안 테스트넷을 운영하며 파트너들에게 받은 피드백이 반영된다.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존 플랫폼들이 쓰기 불편했던 계정·개인키 관리의 자유도를 높였으며 느렸던 기존 블록체인 처리 속도를 향상시

켰다.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서비스 준비 기업 9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7개의 파트너를 공개한 클레이튼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총 26개의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3차 파트너십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캐리 프로토콜'이 합류했다. 캐리 프로토콜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멤버십 적립이 가능한 서비스로 한국과 일본에 1만 개의 매장과 18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경험이 있다.

한 대표는 "이용자는 물론, 개발자, 서비스 기업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클레이튼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28억5100만원 과징금

공시지원금보다 20만원 초과 지급
유통점 35곳에 과태료 1억39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영업과정에서 대리점에 부당한 지원금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3사가 총 35개 유통점에 현금

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번호이동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와 LG유플러스

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 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9억7500만원과 8억5100만원을 받았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4월 초 5G 상용화가 예정돼 있고, 일부 온라인 채널의 불법 행위 영향으로 소규모 유통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모집 제재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규모집 제재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CU 우리도 요기요! GS25

편의점 라이벌 CU(씨유)와 GS25가 배송앱 '요기요'에서 한판 승부를 벌인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근 배달앱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맺고 직영점에서 배달앱 '요기요' 테스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조만간 정식으로 서비스를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GS25는 2016년부터 배송앱 '핑동'을 통해 상품을 배달해왔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비스 지역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었다. GS25는 '요기요'에 입점해 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자율 규약 등에 따라 출점 지역이 빠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최근 배송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BGF리테일이 운영 중인 CU다.

1월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맺은 CU는 다음 주 중 요기요 앱에 입점해 상품 배송에 나선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실시간 재고 연동 등을 테스트 중"이라면서 "3월 마지막 주에 일부 점포에서 오픈하

GS25 직영점서 배달앱 테스트 서비스

CU는 내주 입점...내달 지역 확대키로

숍인숍 형태...이색먹거리 차별화 승부

고, 내달부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양대 산맥인 양사의 '요기요'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CU의 점포 수는 1만3169개로 GS25(1만3107개)에 앞서 있다. 3위인 세븐일레븐(9555개)과의 격차는 크다. 하지만 매출은 GS25가 지난해 6조5510억 원을 기록하며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5조7758억 원)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배송 서비스에서의 승패는 신선식품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는 '요기요' 배송앱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판매 상품 구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편의점 내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먼저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 이색 먹거리로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CU는 간편식 도시락을 비롯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대만 젤리'와 일본의

'모찌롤'을 먼저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S25 역시 최근 론칭한 '방탄커피'와 출시 6개월 만에 1000만 개 이상 팔리고 있는 '아이들샌드위치' 판매가 유력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두 업체는 현재 다른 배송 앱과도 입점 논의 중인 만큼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배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편의점들도 GS25와 CU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출점 절벽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심 및 주요 거주지에 매장이 없는 곳이 드물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과 배송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이 찾기에 시기가 조만간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두 업체가 배송 서비스에 안착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서둘러 뛰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스톱은 최근 '배달의 민족'과 협상이 결렬됐으나 다른 배송 업체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스톱은 올해 안에 테스트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배송 경쟁 추이를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곤약 다이어트 식품' 전성시대



제로칼로리 식자재 업계 주목 대상청정원 '곤약쌀' 신제품 오리온 '닥터유 젤리' 등 출시

식품업계가 봄을 맞아 다이어터 공약을 위해 곤약을 소재로 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곤약의 열량은 100g당 5kcal에 불과한데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지만 저칼로리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대상 청정원의 '집으로ON'은 '곤약'을 쌀 모양으로 가공한 '곤약즉석밥' 2종과 '밥이 될 곤약' 1종을 선보였다.

대상 청정원이 선보인 신제품은 곤약을 쌀과 비슷한 형태로 가공한 '곤약쌀'을 주 원료로 했다. '곤약즉석밥'은 귀리, 현미, 퀴노아 2종으로 구성됐으며 백미 대신 귀리, 현미, 퀴노아 등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슈퍼 곡물에 곤약을 더해 가볍고 든든하게 끼니를 챙길 수 있다. '곤약즉석밥'의 칼로리는 한 봉지당 105kcal(귀리 곤약즉석밥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양의 일반 밥 절반 수준이다.

'밥이 될 곤약'은 곤약 외의 전분을 섞지 않고 만든 쌀 모양의 순수한 곤약쌀로, 기

호에 맞게 백미나 잡곡을 섞어 취사할 수 있다.

곤약젤리도 인기다. 오리온은 파우치형 곤약젤리 신제품 '닥터유 젤리'를 내놨다. 닥터유 젤리는 '살아있는 탱글한 식감'을 극대화했으며 포도, 복숭아 과즙을 넣어 비타민C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롯데제과 헬스원도 키즈홍삼 곤약젤리 2종을 출시했다. 사과맛, 딸기맛 2종으로 구성된 '헬스원 키즈홍삼 곤약젤리'는 어린이용 홍삼 젤리로서 치어팩 타입의 곤약젤리 형태로는 처음 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홍삼뿐 아니라 아연과 비타민D 등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를 함유했다.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해 4월 '헬스원 곤약젤리' 3종을 출시 두 달 만에 150만 개를 판매한 바 있다.

종근당건강도 곤약젤리 '끓을곤약'을 론칭하고 NS홈쇼핑 온라인몰 NS몰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워홈은 저칼로리 곤약 누들 '아워홈 미인면'을 앞세워 다이어터들을 공략하고 있다. 아워홈의 미인면은 잔치국수, 감자말이국수, 비빔면 등으로 구성돼 칼로리 걱정은 줄이고 맛의 선택 폭을 넓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뽀로로랑 참치 먹을래?

동원F&B가 서울 잠실 뽀로로파크에서 5월 5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참치로 만든 다양한 요리로 선보인다. 동원F&B는 뽀로로와 결례한 참치를 선보인 바 있으며 행사 기간 뽀로로파크에는 뽀로로 모양으로 쌓아올린 참치캔 조형물이 전시된다. 모델들이 참치캔 뽀로로 조형물 앞에서 참치 요리와 참치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원F&B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틸렉스와 면역항암제 개발 협력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 1상 물질 생산까지 CDO 서비스 5년간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바이오기업 유틸렉스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위탁개발(CDO)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유틸렉스와 항암면역 치료제에 대한 CDO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틸렉스가 개발하고 있는 최대 15개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에 대한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 1상 물질 생산까지 CDO 서비스를 앞으로 5년간 제공한다.

유틸렉스는 면역학 석학인 권병세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면역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면역항암제 전 분야에 걸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후보물질과 기술들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비임상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식기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왼쪽)와 권병세 유틸렉스 대표이사(오른쪽)가 20일 위탁개발(CDO) 협력 계약 체결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향제 플랫폼을 토대로 다수의 혁신신약(First-in class)과 계열 내 최고 의약품(Best-in-class)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

유한 항체치료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CDO는 개발 중인 의약품 후보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를 개발하고, 이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생산 프로세스 개발과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 물질 생산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관련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본격적으로 CDO사업에 뛰어들어 1년 만에 유틸렉스 등 국내외 6개사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맡았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CDO 사업은 위탁생산(CMO)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우리 회사의 CDO기술을 통해 유틸렉스를 비롯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조기 상업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스타벅스 '실버 일자리' 창출 나선다

시니어클럽 협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스타벅스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일 스타벅스 영등포신길 DT점에서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정호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이사 등 3개 기관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기금 4억 원을 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 후원하고, 시니어클럽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안전보행 및 교통정리를 위한 어르신 보행자통행안전 관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활동 거점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지난년부터, 일부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어르신 관리원 배치 시범 운영을 진행해왔다. 스타벅스는 3월 내에 27곳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110명의 어르신 보행자통행 안전 관리원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이번 협약을 필두로 향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권덕철(왼쪽 두 번째부터) 보건복지부 차관, 이석구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김정호 한국시니어클럽 협회장이 20일 서울 스타벅스 영등포신길DT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사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1280여 매장과 전국 150여 곳의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 중인 '실버 카페'에 근무 중인 1500여 명의 실버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의 재능기부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거래소, 비상장 자금지원 서비스 출시한다

하나은행과 협약... 스타트업 전용 低금리 상품 내달 첫 선
"성장 기업 가장 필요한 건 금리인하... 수요 맞게 상품 개발"

한국거래소와 하나은행이 스타트업 전용 대출 상품을 4월에 출시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하나은행과 함께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을 기획 중이다. 지원 대상은 자금난을 겪는 비상장 유망기업이다. 대출 금리는 일반 시중 상품에 비해 1.0~1.5%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스타트업의 대출은 운용방식이나 한도가 제한적이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

적이 많았다.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해 대출을 연계하거나 벤처투자펀드를 설정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한국거래소와 하나은행의 협약으로 저렴한 금리로 직접 대출이 가능해지면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규 출시 상품은 한국거래소의 스타트업 전용 장외 주식시장(KSM)에서 거래

스타트업(KSM) 기업 현황

구분(추천기관)	회사수(사)	점유율
크라우드펀딩	57	56%
중기특화증권사	2	2%
중소기업은행	2	2%
정책금융기관	5	5%
창조경제혁신센터	9	9%
서울산업진흥원	1	1%
한국콘텐츠진흥원	4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	21%
총계	101	-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은행은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개발 중

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과 함께 2년간 예대마진을 활용해 얻은 수익 4700억 원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기정원은 스타트업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품질 향상, 연구기반 활용 등의 지원에 6829억 원, 정보화 및 스마트 역량 강화 사업에 3174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KSM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스타트업은 기정원의 R&D를 지원받고, 하나은행은 이들에 대한 금융 편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금 조달을 원하는 대다수 비상장기업은 벤처캐피탈(VC)과 같은 자금 공급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우량한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비금융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에 가장 필요한 '자금 직접지원' 등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금공급자와 정책기관, 스타트업 기업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못 믿을 상장사... 실적 정정 속출

차바이오텍, 흑자 공시 한달 만에 -17억 적자전환 발표
상장사 10곳 중 3곳 재무제표 수정... 투자자 불안 커져

실적 변동공시를 작성한 상장사 열 곳 중 세 곳이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수정 조치를 받았다. 급격한 실적 변화로 재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초 이후 1461개 상장사들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 변경'을 통해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329개사(20일 오전 기준)가 감사보고 결과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 실적을 수정하는 기재정정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내부결산을 완료해 손익구조가 전년 대비 30%(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된 경우 이를 당일날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결산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거나 공고하기 전까지 공시를 마무리해야 한

차바이오텍 변동공시 변경 전후

구분	변경전	변경후
매출액	310억2202	268억18
영업이익	3억6094	-17억51
당기순이익	-15억6589	-54억51
자산총계	2906억6896	288억8
부채총계	821억1399	837억08
자본총계	2085억5496	204억7
자본금	262억3883	262억83

다. 공시 내용은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 등이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수정사항이 발견될 경우 확인일 당일 기재정정 공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 변동공시를 재수정한 기업 대부분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신양회와 큐캐피탈, 대원화성,

오리온홀딩스 등은 "외부감사에 따른 금액"이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을 수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내부에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료로 판단해 제외하고 공시했지만, 포함되면서 적자로 바뀌기도 한다"며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바이오텍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올해 실적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일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별도 기준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공시해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한 달 뒤인 3월 14일 흑자(36억 원)에서 적자(-17억 원)로 수정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치가 많이 바뀌거나 공시 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한다면 사후심사 대상이 된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알톤스포츠 '보수적 회계기준 적용' 관리종목 편입

5억 흑자 → 12억 적자로 뒤집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올해도 적자면 코스닥 퇴출 심사



알톤스포츠가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올해 전반적인 비용 절감을 비롯해 전기·공유자전거 등의 매출 증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톤스포츠는 지난해 별도기준 9억여 원의 영업 적자를 내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별도기준 영업손실을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영업손실이 계속되면 퇴출 관련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1994년 설립된 알톤스포츠는 국내 유일의 연 100만 대 자전거 생산능력을 갖춘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고, 2015년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알톤스포츠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외부 감사 결과 흑자는 12억 원 적자로 뒤집혔고 매출도 465억 원으로 감소했다. 보수적 회계 기준을 적용한 탓이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반품 재고평가충당금과 반품충당부채, 대손평가충당금 등 15억여 원을 추가 설정한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알톤스포츠는 올해도 영업손실이 지속되면 코스닥시장 퇴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비용 절감과 함께 매출 확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알톤스포츠는 별도기준 매출 원가율을 전년 85.9%에서 지난해 82.4%까지 낮췄다. 판매비 지출 규모 역시 182억 원에서 91억 원까지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조였다. 회사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매출 비중을 늘리고 공유자전거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등 매출을 늘리는 한편 판매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우리기술투자 영업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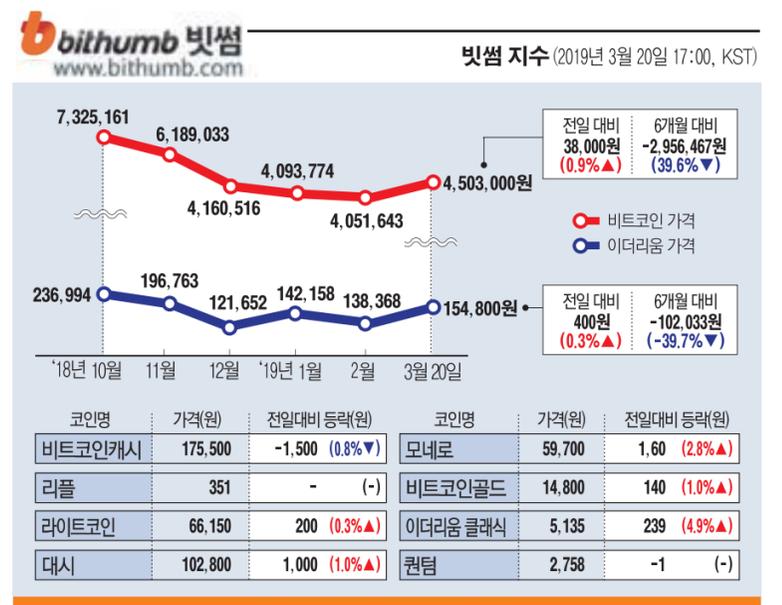
	2017년	2018년	증감금액	증감비율
매출액	8,435,602,214	18,699,594,699	10,263,992,485	121.6%
영업이익	52,684,195	12,827,352,881	12,774,668,686	24,247.6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92,041,750	12,505,748,588	12,413,706,838	13,487.00%
당기순이익	3,322,566,800	9,771,657,019	6,449,090,219	194%

우리기술투자, 영업익 폭증 이유는?

20억 투자 직방, 당기손익 반영
신기술자산 385억으로 2배 ↑
YG엔터·한진칼 등 지분 매매도

코스닥 상장사인 벤처캐피탈(VC) 우리기술투자가 직방에 20억 원을 신규 투자했다. 회사는 직방 등 지분상품 당기손익 반영에 힘입어 대규모 영업이익 증대도 시현했다. 20일 우리기술투자는 지난해 말 현재 직방 주식 10만 주, 지분 0.67%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득원가는 20억 원, 장부금액은 21억2616만 원이다. 직방은 최근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한 신한금융 컨소시엄에 카페24, 현대해상 등과 합류했다. 신기술사업 분야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직방을 선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우리기술투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87억 원에 영업이익 128억 원의 실적을 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121.6% 늘고, 영업이익은 5000만 원에서 무려 2만 4247.6%나 치솟은 규모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33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194.0% 급증했다. 회사는 "신기술금융자산 평가의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됐

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기술금융자산 규모는 191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매도가능금융자산 167억 원이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42억 원으로 뒀 덕분이다. 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직방 0.67% △레이언스 0.12% △노바렉스 0.39% △에스엠신용정보 4.84% △유비온 3.98% △파나스이텍 0.44% △에이치엔에스하이텍 4.05% △두나무 8.03% △Huuuge Inc. 6.62% △네오사피엔스 11.11% △아이지넷 15.78% 등이다. 1년간 스톤브릿지에 드PEF 2.97%와 토파즈 8.17%를 처분하고 직방을 매입했다. 우리기술투자는 신성이엔지 지분 0.77%도 들고 있다. 취득원가는 15억 8900만 원, 공정가치는 13억3200만 원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준 2억5700만 원의 손실이 났다. 신성이엔지는 우리기술투자 지분 756만주(9.00%)를 보유해, 이정훈 대표이사(12.70%)에 이은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 외 우리기술투자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한진칼, 진이어, 타웨이, 바이오리더스 등의 단기매매도 단행했다. 회사는 단기증권매매 처분이익으로 2017년 13억 원에 이어 지난해 6억 원 규모를 올렸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신한과 오렌지라이프가 만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렌지라이프와 손잡고
국내 최대 금융으로 도약하는 신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금융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함께 만드는 따뜻한 금융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다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분양가 공시항목 12→62개로... 가격 내리나

첫 타자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공시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구성현 기자 carlove@

위례 신도시(하남) 올해 분양 예정 단지

지구명	블록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호)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도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vs 주택연금 집으로 노후대비... 뭐가 유리할까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선택이 복잡해졌다. 집을 계속 갖고 있자니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자녀에게 물려주자니 세금도 만만치 않다. 이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맡겨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월수령액 많은 '연금형 희망나눔'·배우자 사망까지 지급 '주택연금' =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공급된 주택연금은 1633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386건, 작년엔 1만237건으로 연간 1만여 건이 공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시행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기간(2018년 11월 1일~12월 31일)에는 103건이 접수됐다. 당초 목표치(100명)는 달성한 셈이다.

만 65세 주택소유자가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연금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면 LH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통해서 30년 만기확정형을 선택할 경우 매달 3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형 희망나눔 VS 주택연금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주택연금
만 65세	가입자 나이	만 65세
시세 9억 원	주택 가격	시세 9억 원
30년 만기확정형	지급방식	중신, 정액형
327만 원	월지급금	186만 원(배우자 만 61세 기준)
이사 필요	거주지	이사 필요없음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중 선택	주거마련 (비용)	-
전세금 9000 만원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450만 원(임대보증금 5%만 부담)	(월임대료)	-
약 17만 원(수도권 기준)	(만기시)	-
매각대금 지급 완료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남은 부분 채무자(상속인) 소유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9억짜리 집 소유한 만 65세 A씨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30년간 매달 327만원 받지만

LH에 소유권 넘어가 이사 필요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살면서

배우자 사망까지 186만원씩 지급

이 상품을 택하면 LH에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입자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한다. LH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을 택했다면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가구당 9000만 원.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인 45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약 17만 원(수도권) 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신, 정액형으로 선택하면 월 지급금은 186만 원 정도 계산된다. 배우자가 만 61세라고 가정했을 때 금액이다.

주택연금은 배우자 중 한 명만이라도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지급

금 산정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된다.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종신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 월 지급금이 LH 상품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주택처분금액보다 연금지급총액이 더 많더라도 차액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처분하면서 연금을 총 6억 원 지급했다라고 초과액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HF 주택연금 기준 완화 초읽기... LH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민 중' =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18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하향하고,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바꿀 경우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작년 말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LH는 기준 완화를 고민 중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강남 생활권... 용산·여의도 가까이

서울 집값 상승 5위 '동작구' 관심집중

한강 이남 중 가장 많이 올라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의견도

동작구의 집값이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서 지난해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뛰어난 접근성 때문으로 향후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20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587만 원에서 715만 원으로 2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18.1%를 기록한 송파구와 18.0%의 강동구, 17.6%의 서초구, 16.2%의 강남구 등 강남4구 뿐 아니라 한강 이남권 전체와 비교해도 단연 앞서는 수치다.

특히 동대문, 성북, 마포, 서대문 등 한강 이북 지역이 상위권을 휩쓴 가운데 오직 동작구만이 한강 이남 지역 중 상위 5위 내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동작구는 9·13대책의 영향에도 강남4구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9·13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전체의 평균 집값은 0.33% 떨어졌지만 동작구는 0.08% 하락에 그쳐 견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1.13%), 강남구(-1.0%), 강동구(-0.51%), 서초구(-0.1%) 등 강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순위 (단위: %, 2018년 기준)

동대문구	1위	25.1
성북구	2위	24.1
마포구	3위	23.3
서대문구	4위	22.9
동작구	5위	21.8
송파구	11위	18.1
강동구	12위	18.0
서초구	13위	17.6
강남구	19위	16.2

※출처: 부동산114

남4구와 비교해도 확연한 우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세에 대해 지리적 이점과 가격 경쟁력 등 지금까지 저평가 받아온 동작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동작구는 서초구와 바로 맞닿아 있어 실질적으로 반포, 방배와 생활권을 공유할 뿐 아니라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용산, 여의도 와도 가까운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강화 등 강남권의 고가 주택이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게 되자 동작구가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강남4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왔기 때문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LUBAS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after
1 day
your teeth
feel
refreshed



after
1 day
your teeth
feel
refreshed

無
사카린
나트륨

無
불소

無
광물성
오일

無
주스
반응

無
동물성
원료

無
안식향산
나트륨

無
파리벤

無
정량탄산
칼슘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한강 '보행교' 104년 만에 부활

노들섬~노량진 500m 구간 한강대교 차도 위에 만들기로 노량진 일대 경제 재생도 기대



한강대교 위로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교 '백년다리' 구상도.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2021년 한강대교 남단에 기존 교량을 이용해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를 다시 개통한다. 1917년 '한강 인도교'가 최초 개통된 이후 약 10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특히 뉴욕의 명소인 '브루클린브리지(Brooklyn Bridge)'처럼 1층은 차도, 2층은 보행도로 운영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드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대교 보행교 기본구상안'을 20일 발표했다.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아치 구조와 기존 교각을 이용, 기존 차도는 유지하면서 쌍둥이 다리 사이 공간을 이용해 폭 10.5m, 길이 500m 보행교를 놓는다.

서울시는 "보행 중심이라는 한강대교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백년다리의 전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들섬으로 쉽고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행교에는 △한강과 주변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전망데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백년마당) △미니잔디밭 등 녹색 휴식공간(그린데크) 등이 조성돼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시드니의 하버브리지처럼 보행교 자체가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백년다리가 될 한강대교 보행교가 불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5월 중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추진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6월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낙후한 한강대교 남단 하부 수변공간 재생을 본격화한다.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와 연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 재생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노들섬과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 이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침체됐던 노량진 일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헤어드라이어에 설치된 몰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복판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박모(50)·김모(4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납품 업체 재판 본격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기소된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진행에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이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슬 기자 charmy@

흥릉·양재 등 신성장 거점에 387억 R&D 자금 투입

서울시, 中企·벤처기업 활성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올 한 해 흥릉, 양재 등 신성장 거점에 총 38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중소·벤처·창업기업 대상으로 기술 상용화(공개평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전진기지로 적극 육성 중인 △흥릉(바이오·의료) △양재(인공지능)

△G밸리(산업 간 융복합) △동대문(패션)에 총 80억 원을 투입해 R&D 사업을 지원한다.

우선 서울 흥릉 일대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를 위해 서울 소재 바이오기업과 대학·병원·연구소의 컨소시엄 대상으로 R&D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제품화 역량과 대학·병원·연구소의 기술역량 연계를 기술사업화 R&D 선도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제당 최대 5억 원 이내, 기간은 2년 이내로 해 10여 개 과제 선정을 목표로 총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재 혁신 허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R&D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총 28억 8000만 원을 투입(R&D 과제당 최대 3억 원 지원)한다.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IT, SW와 제조업 등 다양한 기업·산업이 공존하는 G밸리에 산업 간 융·복합 기술 촉진을 위해 총 10억 원을 투입(R&D 과제당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서울 패션 산업 전반과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10억 원을 투입(R&D 과제당 최대 2억 원 지원)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소송 각하 후 청구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소송 절차가 부적법해 각하(취하)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8년 4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사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사업기간 내 구축 실패를 이유로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3년 12월 처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두 차례 응소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유추 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정고법에 돌려보냈다. 장호진 기자 js6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예의를 차려입다

PART1. 철학이 있는 패션 - 시니어 시크의 시대
PART2. 체형을 알고 패션을 선택하면, 스타일 백전백승
PART3.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옷장 정리 꿀팁
PART4. 내가 바로 시니어 패션 리더 - 시니어 모델 소은영, 핫한 모델 김철두
PART5. 패션 핫 아이템 '항수' - 스타일의 완성, 항수를 입다
PART6. 해외 시니어숍 열풍 - 시니어를 사로잡을 세계의 패션 브랜드
PART7. 중년기자들의 패션 단상

월레이징 투석 시작하면 폐가망신은 멍! "만성콩팥병에 절망 마세요"

때론 유명인사의 죽음이 사인이 된 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프리디 마큐리의 에이즈나 스티브 잡스가 걸린 위장암이 대표적이다. 중장년들은 신부전증으로 유명을 달리던 가수 배호를 떠올린다. 비반 병환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인이 전해지면서 이 병은 집 기동부리 뽑아 병원을 대야 할 만큼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하지만 예외는 할애무석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1965년 사망했는데, 국내에 인공신장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5년 수도권병원에서였다. 일반인이 쉽게 할애무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전문의들 또한 이런 선입견에 반기를 든다. 신장병은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촌 먹고 입고 잘 수 있으면 끝 더 이상 무슨 필요?

살이 찌거나 간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다. 그러나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쉽지 않다. 살고 싶은 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대충 살기 십상이다. 이럴 때 살이란 위대한 곡예에 가깝다. 곡예 역시 진땀을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지사 한 번 태어난 인생, 심란한 곡예보다는 평온한 활로로 살을 즐기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을 보라.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뭐라 하긴 상관없다. 내 방식대로, 내 지향대로 산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생의 '참'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다 다르다. 성공한 대학교 교수 연대희

소통과 공감대를 위해 다시 청춘을 노려하다 8000대의 아이콘 조장현, 송시현, 이범하

실류 7인 예술가미 미치광이 같은 예술혼 전라 작가 진공재, 권기호. 태운 인생을 말하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근대건축물의 보고, '인천개항누리길'을 걷다

천천히 1호선을 타고 종착역인 인천역으로 간다. 천천히 안에서 시간여행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인천역 앞에 있는 화려한 퍼무를 통과하면, 100년대 말 인천 개항 시절의 풍경이 펼쳐지는 상상 말이다. 실제로 하루, 나머지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머니테크 집주인도,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용 88㎡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반상 올케이드 사할음식 보리누룽지와 볼나물로 차린 향긋한 제철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장갑호 전 이집트대사관 대사 탐라국 왕자님께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취업 디딤돌 놓다

외국어 이력서 작성·면접법 등 무료 아카데미 운영
취업 이후 정착지원금 지원
4년간 1만8615명 취업 성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해외 취업 정보 행사 '월드잡페어 플러스'에서 청년들이 기업과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들의 해외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 교육부터 현지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20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인력공단의 주선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자는 1만8615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일본 1828명, 미국 1380명, 싱가포르 405명 등 5783명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2015년 취업자(2903명)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중 전문·관리직 취업자도 2668명이나 된다.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 역시 2015년 2576만 원에서 지난해 2898만 원으로 늘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고루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처음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1998년이다. 외환위기로 국내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던 때,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지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시절을 넘기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자연 지원이 몰렸고 입소문도 퍼졌다. 인기가 점점 좋아지자 산업인력공단은 2013년 고용노동부, 한국무역투자진흥공

사(코트라)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산업인력공단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해외 취업 아카데미'는 특히 인기가 좋다.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수준별 외국어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법, 해외 인맥 구축 방법까지 모든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탁 ETS 토익 대표, 다니엘 게다트(Daniel Gedacht) 주(駐) 부산 미국 영사 등 명사들도 틈틈이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찾아 '글로벌 인재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지난 3년 동안 약 4600명이 해외 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이어 중소도시인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에도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잇따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업황이 나빠지면서 취업난에 봉착한 이들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다.

올 초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수강한 이남희(26) 씨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해외 취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외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던 점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강사 제니 조(Jenny Cho) 씨 역시 "자신이 희망하는 국가, 직종 등 목표를 정한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정부 해외 취업 지원사업이 많이 알려져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해외 발품도 아끼지 않는다. 특히 뉴욕, 도쿄, 베이징 등 외국 16개 도시에 설치된 '케이(K)무브 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해외 거점 역할을 한다. 센터는 한국 청년들과 현지 기업을 연결하고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케이무브 센터가 발굴한 현지 일자리는 산업인력공단이 보증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케이무브 센터는 취업 성사 후 사후 관리도 잊지 않는다. 특히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현지에 자리 잡을 때까지 최대 14개월 동안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으로 한 달에 100만~300만 원씩 지원한다. 아세안이나 중남미 등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취업한 청년보다 지원금을 100만 원 더 준다. 신흥국 취업 시장 공략에 나선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외 취업자 간 친교 행사도 연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해외라는 넓은 무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한국석유관리원의 진로체험관 행사장. 사진제공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리원 채용설명회 23일까지 코엑스서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은 20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석유관리원은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채용 설명회와 가짜 석유 분석법 등을 시연하는 진로 체험 마당을 운영한다.

채용 설명회는 박람회 첫날인 21일 오후 2시부터 중앙 무대(Smart Square)에서 진행된다. 석유관리원 인사 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직접 만나 기관의 인재상과 입사절차 등을 설명하고 채용정보도 소개한다.

석유관리원은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일반직과 고졸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로체험 마당은 석유관리원 부스(D44)에서 상시 운영되며, 학생들이 4차 산업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공·화학 분야에 대한 진로상담과 가짜석유 분석 실습 등을 진행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양호'

"중소 상생협력 정책 이바지"... 전년보다 1등급 향상

근로복지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1등급 향상된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평가위원회는 58개(공기업형 28개·준정부형 26개·나머지형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동반성장 평가(우수·

양호·보통·개선 4개 등급)를 하고 있다.

공단은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설립 목적에 따른 동반성장 추진 과제를 도출해 직영병원이 보유한 고가 의료장비의 중소병원 공유를 통한 수익 배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

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핵심 역량과 연계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된 동반성장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www.childfund.or.kr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키링 누르면 위치 전송...강남역 사건 보고 로즈벨 고안”

W 기획 도전하는 여성

③2 호신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김다혜 로즈벨 대표

로즈벨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은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세요. 위험에 노출됐을 때 좀 더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거죠. 크든 작든 일상적인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성, 남성, 노인 할 것 없이 호신 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2016년 5월 17일, 30대 남성이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죽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 마 살인사건’이다.

이후 “우연히 살아 남았다”는 안도 아닌 자조가 퍼졌다.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다면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흘러나왔다. 당시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한 김다혜(27) 로즈벨 대표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좀 더 빠르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누구나 한 번쯤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뒤를 돌아보고, 괜히 발걸음 소리를 크게 내본 경험이다. 경찰서는 어디에 있나, 가장 빠르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등 불안한 생각

위험상황에 대처할 안전 네트워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요성 공감 로즈벨 액세서리, 블루투스 기술로 위치·현장 녹음 파일 지인에 전달

에 잠겨있을 때가 많다. 김 대표는 폭력 등 범죄 발생 시점과 신고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로즈벨은 ‘La belle rose pour elle’ (그녀를 위한 아름다운 장미)의 줄임말이다. 최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만난 김 대표는 “장미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꽃이다.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많이 사용된다. 저희 제품이 장미를 보호할 수 있는 가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즈벨의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고안한 게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인가요?

“네, 그렇죠. 당시 피해자가 발견된 시점이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좀 흐른 뒤라고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달려들었을 때, 그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여성은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호신 앱이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 누르거나 위험당한 이후 누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원리인가요?

“액세서리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불안함을 느낀 순간 로즈벨을 짧게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앱이 실행되면



김다혜 로즈벨 대표가 충북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북대 창업동아리에서 꿈을 키워 로즈벨을 창업한 김 대표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다음 꿈”이라고 말했다.

서 등록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주고,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황이 녹음돼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로즈벨을 길게 누르면 되는데, 3초 안에 실시간 위치와 현재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지인에게 전달됩니다.”

-새로운 기술인가요? 낯설지 않은데요.

“네, 엄청 어렵거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제품인 거죠. 다만 블루투스라는 건 원거리에서도 신호를 휴대전화기리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로즈벨은 휴대전화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편당으로 목표액의 300%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목표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 넘게 모이면서 목표치를 채울 수 있었어요. 편당을 통해 창업의 가능성을 처음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아이템을 만들고 개발하는 데만 몰두했지, 고객들과 소통하고 시장 반응을 볼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창업동아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편당을 통해 고객들은 제작 과정부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이 잘되지 않는다’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키링 형태로 나온 것도 고객 아이디어였어요. 지금도 현장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고객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은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

편당 목표 두 배 이상 달성하며 창업 더욱 간결한 2차 로즈벨 준비 중 반려동물 안전 네트워크에도 관심 유기동물 줄이는 게 궁극적 목표

겠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공포를 많이들 경험하잖아요. 일상적인 경험에 의한 구매였던 거죠.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공감해요. 흥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서요. 남성용, 어린이용, 실버용까지 계획했던 게 그런 시장 호응 때문이었죠.”

-1차 제품 출시 이후 멈춘 상태인 거죠?

“생활 환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위험 시 로즈벨 제품으로 손이 향하는 과정에서 방해물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구동 자체를 봤을 때, 아이폰은 제한적이었어요. 위치정보도 많이 못 가져오고, 녹음 기능도 못 하게 자체적인 규제가 많았어요. (로즈벨은 안심키, 안심 길찾기, 안심친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규제를 피한다 해도, 애플사에서 막으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또, 한 앱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 로직이 꼬이거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기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2차

제품은 1차 때보다 간소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로즈벨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위험한 순간 혹은 불안한 순간에 사용하길 원해요. 그 기능을 중점으로 남겨서 로직을 간결하게 다시 짜는 작업 중입니다.”

◇창업 꿈나무의 끝나지 않는 도전기 “안전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목표”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 동시에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나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의 궁극적 목표인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반려동물의 안전도 포함되는 계기가 됐다.

-기존 ‘인식표’와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이 유기됐거나 실종된 경우 주인의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이름이나 보호자의 전화번호 같은 정보들이 적힌 인식표를 달아주는 게 법적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기동물 센터에 방문해 보면 인식표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내장형 인식표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일도 있어서 선호되지 않아요. 로즈벨 ‘스마트 인식표’는 내장된 집의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최대 30m 안에 반려동물이 있을 때 위치를 추적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어요. 기존의 인식표는 그저 이름만 표시할 뿐이었지만, 스마트 인식표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정거리 안에 있는 애완동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에 한번 등록하면 다시 지울 수 없다 보니 반려동물이 유기되더라도 누가 주인이었는지 등록된 상태인 거죠.”

-상용화는 언제쯤 이뤄지나요?

“시장 반응이 좋아요. 하지만 로즈벨 호신 앱 개발을 완성한 후 할 계획이에요.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께



키링 타입 로즈벨 액세서리는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번호로 자신의 상태와 위치가 전송된다.

는 2차 개발된 로즈벨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고요. 스마트 인식표는 기부와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유기견센터에 기부되는 형식으로요. 유기견의 수를 줄이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꼭 이뤄져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네요. 지난해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네요.

“우연한 기회였어요. 러시아에서 ICT에 관심이 많아서 바이어미팅도 많이 할 수 있었죠. 알파벳크라는 러시아 10위권 은행의 은행장도 만났어요. 러시아 은행권이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보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러시아에 진출할 때 모든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희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거죠.”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한 꿈나무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안전’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게 로즈벨이고, 분야를 넓혀서 유기견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축이 완성되는 단계인데, 이 제품들이 잘 되면 아동과 실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해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 사각지대인 사골까지 로즈벨이 확장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누리는 그날을 꿈꿨습니다.”

글·사진/김소희 기자 ksh@



새 시장환경에 맞춘 다양한 투자솔루션!

국민의 투자솔루션

KB STAR ETF

- 200
- 200선물레버리지
- 200선물인버스
- 200선물인버스2X
- 코스닥150
-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 코스닥150선물인버스
- KRX300

시장대표주식

- 고배당
- KQ고배당
- 중소형고배당
- V&S셀렉트밸류
- 모멘텀밸류
- 모멘텀로우볼
- 5대그룹주
- 수출주
- 지주회사
- ESG사회책임투자
- 200고배당커버드콜ATM

주식테마

- 채권
- 단기통안채
- 단기국공채액티브
- 중기우량회사채
- 국고채3년
- 국고채3년선물인버스
- 중장기국공채액티브

해외지수

- 중국본토대형주CSI100
- 차이나HSCEI(H)
- 일본TOPIX레버리지(H)
-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
- 글로벌4차산업IT(합성H)
- 차이나H선물인버스(H)
- 미국장기국채선물(H)
- 미국장기국채인버스(H)
- 미국장기국채인버스2X(합성H)
- 미국장기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H)

주식섹터

- 우량업종대표주
- 헬스케어
- 200 IT
- 200 금융
- 200 에너지화학
- 200 중공업
- 200 철강소재
- 200 건설
- 200 경기소비재
- 200 산업재
- 200 생활소비재

혼합자산

- 주식혼합
- 채권혼합
- V&S셀렉트밸류채권혼합
- 헬스케어채권혼합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경제 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처리 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2468호(2018.06.07)

창업 7년 만에 '수제맥주 성지' 미국도 흘렸다

대한민국 주류대상 3연패 ... 김희운 더부스 대표

한의사 출신...서울에 6곳, 美 LA 등 100곳 이상 매장 유치
"대동강 맥주보다 맛있게" 우여곡절 끝 국내선 '대강 맥주'로

대통령이 선택한 수제맥주.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있는 한국 대동강 맥주. 미국 슈퍼체인 홀푸드 입점.

창업 7년 만에 업계를 평정한 크래프트 비어(수제맥주) 업체 '더부스'의 명함이다. '맛있는 맥주와 피자를 부스(booth)에서 즐기자'는 캐치프레이즈로 명품 수제 맥주 시장에 발을 디딘 김희운(32·사진) 대표를 만나 더부스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 봤다.

김대표는 원래 한의사로 일하다가 더부스를 창업했다. "대학 때 편집숍을 보면서 좋은 제품을 부스 같은 곳에 한 데 모아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언젠가 저렇게 좋은 것들을 모아 판매하는 사업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김 대표는 현재는 남편이 된 남자친구 양성후 공동대표, "한국 맥주는 대동강 맥주보다 맛 없다"는 기사를 썼던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다니엘 튜터 사외이사와 의기투합했다.

더부스가 선보인 '대강 페일에일'과 '치클리에일'은 최근 '2019 대한민국 주류대상' 크래프트 에일 맥주 부문에서 대상을 휩쓸었다. 앞서 내놓은 '국민IPA', '긍정신 레드에일', '유레카서울 시트라 홉에일' 등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을 거머쥔 것. 대표 상품인 대강 페일에일은 세계적 수제 맥주 브랜드인 '미켈러'와 합작해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오고 있다. 나머지 맥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더부스 현지공장에서 생산해 가져온다. 더부스 제품은 수제맥주의 성지 미국에서 더 잘나간다.

"캘리포니아공장에서 생산한 맥주를 현지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유통한 지 1년도 안 돼 미국 슈퍼체인 '홀푸드'에 입점했어요. 좋은 재료와 세계 최고의 브루어리(맥주제조공장)에서 생산해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적중한 셈이죠."

더부스는 국내에서는 경리단을 시작으로 서울 내 6개의 직영 펍을 운영하고 있



며, 현재 캘리포니아는 물론 로스앤젤레스(LA) 등으로 확장해 모두 100곳 이상의 신규 매장을 유지했다.

대강 페일에일은 '대동강 맥주보다 더 맛있는 맥주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대동강 페일에일'로 지었다.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해 한국에 들여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황당한 이유를 들어 통관을 막았다. "북한 대동강 물이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통관이 힘들다고 하

군요. 어쩔 수 없이 '동'자에 'censored(검열)' 표시를 한 스티커를 붙여서 들여왔죠."

스타트업의 특성상 회사를 창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기 마련이다. 김 대표 역시 주류업에 대한 노하우보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국내 대형 주류회사 이외에 수제맥주를 홍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은품도 맥주비용의 5% 내에서만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는 커녕 이벤트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 판촉에 애를 먹죠. 고객에게 더 좋은 맥주를 선보일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만 열려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김 대표의 경영 철학은 '수제맥주를 통해 고객이 삶의 색다른 재미를 찾는 것'이다. 자신이 수제맥주를 통해 일상의 새로운 반전을 이뤘듯 맥주를 좋아하는 고객이 더부스로 새로운 일상을 꾸꾸는 것만으로 큰 성과라는 신념이다. "술이 단지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부스와 함께 재미있고, 흥이 나는 삶을 누리셨으면 해요. 경리단길 작은 피맥펍으로 시작해 미국에 진출한 아시아 최초의 브루어리가 된 '더부스' 도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기자 yes@·사진제공 더부스

진영환 회장·송재열 대표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진영환(왼쪽 사진) 삼익THK 회장과 송재열(오른쪽) 금탑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진 회장은 1991년 국내 최초로 LM 가이드(기계의 직선 운동을 돕는 장치)를 생산해 반도체 장비, 로봇, 공작기계 등 국산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대표는 기술 개발과 노사 화합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금탑은 세계 최초로 무(無)윤활 도어체커를 개발하는 등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27년간 연평균 34%대 성장률을 이뤘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탁현민 후임 靑선임행정관
홍희경 前 MBC C&I 부국장

청와대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선임 행정관은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해 행사용역 입찰을 비롯해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행사 기획 업무를 20여 년간 담당해 왔다. 탁 전 행정관은 1월 시작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탁 전 행정관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메쉬코리아, IT 전문인력 영입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는 부릉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 총괄과 제품 책임자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데이터 사이언스 총괄을 맡게 된 김명환(왼쪽 사진) 박사는 스탠퍼드에서 통계학 석사를 마치고 빅데이터, AI, 소셜 네트워크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개발 전문가다. 심의준(오른쪽) 제품 책임자(PO)는 다년간 웹젠과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재직하며 웹서비스, 보안, 지도와 오픈(Open) API등을 개발하고 관심사 기반의 SNS 서비스로 창업했던 경험이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아시아나항공 봉사단, 캄보디아 희망학교에 '컴퓨터 교실'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 봉사단 14명이 19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희망학교'에서 아름다운 교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 희망학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42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한국인이 설립했다.

이들 봉사단은 학교 놀이도구 도색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활동을 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시아나 현직

승무원과 정비사가 항공직업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봉사단은 캄보디아 희망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조성 활동을 실시했다. 신규 컴퓨터 실에는 노트북 2대, 컴퓨터 38대를 설치하고 컴퓨터용 책상, 의자, 대형 스크린 등 교육 기자재를 함께 기증해 IT 수업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아시아나항공 봉사단이 19~20일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희망학교'에서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수업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아시아나항공

'라 페라리' 타는 손흥민, 보유한 슈퍼카 5대 합하면 '22억원'

손흥민이 총 22억5000만 원에 달하는 5대의 슈퍼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영국 일간지 더선은 "주급 11만 파운드(약 1억6000만 원)의 손흥민은 총 150만 파운드(약 22억4800만 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슈퍼카는 115만 파운드(약 17억 원)의 페라리의 '라 페라리'다. '라 페라리'는 전 세계에 499대 한정 생산된 차다.

국내에서 손흥민이 탄 것이 목격됐던 '아우디 R8 쿠페'는 1억7000만 원 수준이



다. 이밖에 제조사로부터 선물받은 마세라티의 SUV 모델인 '르반떼' (사진)를 포함해 검은색 레인지로버와 벤츨리를 한 대씩 보유 중이라고 더선은 보도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롯데백화점 잠실점, 협력사 판매사원 위한 마사지숍 오픈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파트너사의 복지를 위한 마사지숍인 '엘케어(L Care) 룸<사진>'을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엘케어 룸'은 헬스케어(안마사)가 파트너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잠실점은 장애인고용단과 연계하여 시각 장애인 마사지사도 고용했다.

롯데백화점은 파트너사 직원들의 감정노동 케어를 위해 악성 컴플레인 고객 응대 방법을 적은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으나, 직원들의 신체까지 관리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잠실점에서 운영하는 '엘케어 룸'이 최초다. '엘케어 룸'은 직원들이 1회 30분간 하루 5~10명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한



달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헬스케어들의 주휴(2일)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약 200명 정도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엘케어 룸'은 직원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커피·다과 서비스 등도 준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SK하이닉스, 산학연구 포상식
최우수상 조규형 카이스트 교수

SK하이닉스는 20일 경기 이전 본사에서 '제7회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식'을 열어 5건의 우수발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산학협력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우수특허 개발 장려를 위해 SK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매년 포상식을 열고 있다.

올해 최우수상에는 조규형(사진 왼쪽 네 번째) 카이스트 교수, 우수상에 박철진 한양대 교수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김김재준 포항공대 교수 △김선욱 고려대 교수



△박인철 KAIST 교수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조규형 교수의 '기준 전압 생성 회로' 특허는 반도체 회로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전압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전압을 생성해 저전력 특성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최경주, 4년 만에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부단장

'코리아 탱크' 골퍼 최경주(사진)가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부단장에 선임됐다.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터내셔널팀의 에니 엘스 단장은 최경주와 함께 트레버 이멜만, 마이크 위어를 올해 프레지던츠컵 부단장으로 임명했다. 1994년 창설된 프레지던츠컵은 격년제로 열리며 올해



대회는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다.

최경주는 2015년 인천에서 열린 대회 이후 4년 만에 다시 프레지던츠컵 부단장을 맡았다. 그는 선수로도 2003년과 2007년, 그리고 2011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다. 김정용 기자 cogito@

부음

▲김서진(전 대우증권 부사장) 씨 별세, 김성한(뉴질랜드 파트너즈 파이낸셜 대표)·태한(IMA 파트너즈 대표)·효정 씨 부친상, 배준환(텔 싱가포르 이사) 씨 장

인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특2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2-2227-7580

▲유상준 씨 별세, 유성식(KBS 해설위원)·연식 씨 부친상 = 19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11시, 02-2650-2745

인사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한경호
- ◆SBI저축은행 ◇상무 △전략리스크관리실장 경규상 ◇이사 △감사실장 장동록 ◇이사대우 △리테일영업2사업부장 김지량 △지점관리사업부장 김대중 △준법감시인 안홍범 ◇사업부장 △채널전략사업부장 김태진 △리테일영업1사업부장 우희준
- ◆위키투리 ◇소셜뉴스 위키투리 △편집국 부국장 서기찬
- ◆월요신문 △마케팅광고국 부장 김동현
- ◆제민일보 △논설위원실장 고두성 △상무이사 양창영 △편집장 박훈석 △기획조정실전문 현민철

자본시장 속으로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자본시장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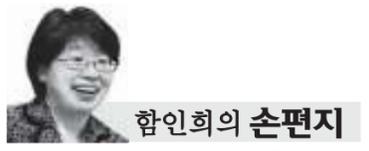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는 만큼 유희 노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긴 유희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직접 회자되는 횟수는 최근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에 진행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사라진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 것이 주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주도하는 변화이다 보니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망이 우세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다.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는 만큼 유희 노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유희사의 지역적인 한계, 업종별 제약조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규제가 허락하는 한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되어 금융의 효율성,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함인희의 손편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무궁화 열차 안, 사람 사는 냄새

달리는 열차 안, 차창 밖으로 내다보는 풍경은 완연한 봄이다. 잔뜩 물오른 가지엔 꽃망울이 탱탱하게 맺혔고, 겨우내 얼었다 녹아 포슬포슬해진 땅 위로 경운기와 트랙터가 분주히 오간다.

크게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진다. 아직은 살 만한 사회로구나 싶어지면서. 나는 무궁화 열차의 은근한 뽀(?)이다. 사랑을 비교급으로 표현하는 건 금물일 테지만, KTX 일반실보다 자리도 널찍하고,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도 KTX 부럽지 않을 만큼 수준급이다.



켰느냐' 살짝 물어오는 할머니를 만날 때도 있다. 환갑 나이에 "아이고, 새댁같이 굵네(!)"라는 과찬도 들어봤다. 무궁화 열차에 단점이 있다면, KTX를 먼저 보내느라 연착(延着)과 연발(延發)이 빈번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 정주영 명인 "불가능하다고? 이봐! 해보기는 했어?" 부하 직원들이 힘든 일을 앞두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그가 "포기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 말이다.

"연구원들 사이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으니까 투자자들도 관련 기업을 관심 있게 보는 거다.

결론적으로 A사는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A사를 믿고 함께 찬란한 수소 미래를 꿈꾸던 주주들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결려내지 못한 변수였다. 스몰캡 담당 연구원들은 중소형 법인 분석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말한다. 기업과 연구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서다.

입을 모은다.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돈이 된다. 어쩌면 이번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 ☆ 시사상식 / 메가시티(megacity)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기자수첩



이정희 자본시장1부/ljh@

신뢰비용의 함정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봄날의 산책

황사와 미세먼지가 휘방을 놓고, 꽃샘 추위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매화가 피었다. 며칠 전 나는 파주 출판단지 안을 산책하다가 검은 매화나무 가지에 핀 하얀 꽃잎을 바라보며 기쁨의 탄성을 터뜨렸다. 반갑구나, 매화야! 도대체 검은 매화 나무 가지 어디에 저토록 흰빛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일까? 귀뚜가기가 떨어져 나갈 듯 추웠던 지난 겨울의 어느 날이 떠오른다. 한파가 몰아치던 날 두꺼운 외투로 몸을 꽁꽁 감싸고 추위에 떨며 걸었다. 새벽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불안에 감싸여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서성거렸던 시간들. 먼 고장에서 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듯 나는 봄을 기다렸다. 이제 봄빛은 도처에서 화사하게 빛나고, 땀을 스치는 바람은 따뜻하다. 사방에서 폭죽처럼 터지며 넘쳐나는 일조량이 내 기분을 기쁨으로 채운다. 더구나 봄은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걷기에 좋은 계절이 아닌가!

유롭게 움직이는 가운데 구상되지 않은 어떤 생각도 믿지 마라. 또한 근육이 춤추는 가운데 구상되지 않은 어떤 생각도 믿지 마라." 니체는 서재에서 낡은 서책을 뒤적이며 쓴 글을 믿지 않았다. 오직 몸을 움직이며 얻은 발달하게 생동하는 지각(知覺)들, 몸과 피로 이루어진 사유만이 진짜라고 말했다. 니체는 산책을 좋아했다. 그는 자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망이 좋은 고산 지대와 언덕들, 경관이 수려한 바닷가나 호숫가를 찾아 걸었다. 스위스 질스마리아의 호수들, 돌로미티 산맥, 지중해 절벽들, 이탈리아의 토리노나 제노바, 프랑스의 니스와 망통 같은 도시를 하염없이 걷고, 걷는 동안 떠오른 생각들을 노트에 적었다. 니체의 가장 핵심적인 '영겁회귀의 철학'도 산책에서 얻은 결실이다.



걷기는 사유라는 특권을 되살리고, 더 나아가 몸의 무력진 직관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날카롭게 일깨운다. 우리는 걷는 동안 사물, 습관, 생각, 도덕, 믿음 따위를 꺼내서 새로 빛낸다. 걷기는 세계와 맞서는 존재의 약동이며 도약이다. 나는 걷는다, 고로 나는 살아 있다!

걷기의 동력은 머물러 있음을 끝내는 움직임, 이동, 변화의 총동에서 나온다. 걷는 동안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은 빨라지면서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이다. 걷기에 필요한 근육을 쓰면 둔중하던 몸도 가벼워진다. 앞을 향해 내딛는 걸음이 영혼 안에 깊이 잠든 새들을 깨운다는 걸 느낀다. 걷는 동안 무겁고 어수선한 내 머릿속에서 그 새들이 깨어난 공중으로 솟구친다. 걷기는 사유라는 특권을 되살리고, 더 나아가 몸의 무력진 직관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날카롭게 일깨운다. 우리는 걷는 동안 사물, 습관, 생각, 도덕, 믿음 따위를 꺼내서 새로 빛낸다. 걷기는 세계와 맞서는 존재의 약동이며 도약이다. 나는 걷는다, 고로 나는 살아 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이렇게 썼다. "야외에서 몸이 자

존재는/이 만찬이 언제 끝날지 더더욱 모른다.(세자르 바예호 '불행한 만찬')

나는 산책을 끝내고 단골로 드나드는 출판단지 안의 한 카페에 들러서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오늘 산책을 나서며 집에서 들고 나온 책은 세자르 바예호(1892~1938)의 시집 '오늘처럼 인생이 싫었던 날'이다. 카페에서 숨결을 고르고 들고 온 시집을 펼쳐 소리내지 않은 채 눈으로만 읽는다. 바예호는 페루의 광산촌에서 태어난 시인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과점마저 마치지 못한 채 집에서 독학했다. 부친의 일을 돕다가 의대(醫大)에 진학하지만 역시 중도에 그만두었다. 여러 대학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사탕수수 농장에서 회계 보조로 일했다. 23세 때부터 시인들과 교류하며 신문과 잡지에 시를 기고했다. 바예호 시집을 읽는 시간은 한가로움과 안식, 그리고 고요한 몰입으로 채워진다. 시를 읽는 동안 먼 데서 봄비가 내리듯 귀의 달팽이관에 고요가 차오른다.

금지된 것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궁지에 몰린 채 사는 것은 '불행한 만찬'을 받는 것과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전의 필요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줄 최소한의 별이에 속박된 채 살아야 하는 지를 나는 잘 안다. 누구나 삶은 고단하고 괴로운 것.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직장에서 보람이나 큰 기쁨 없는 노동에 매인 노동자들. 우리는 한밤중에 배가 고파 잠 못 들고 침달대는 어린애와 같이 이 세계에서 고단한 노동과 크고 작은 불행에 반응하며 산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팔꿈치를 괴고 머리 숙인 패자로 살아야 하는가? 누구도 생(生)이라는 이 '불행한 만찬'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 '불행한 만찬' 앞에서 한숨을 쉬고 괴로워할 수만은 없다. 니체는 쓴다. "오늘 웃는 자가 최후에도 웃는다"라고! 웃음이 삶의 무거움을 덜어낼 명약(名藥)이라면 웃자. 더 자주, 더 크게 웃자. 더 멋진 건 함께 웃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출판단지 안 하천에 야생 오리들이 떠 있는 걸 보았다. 하천 안쪽으로 마른 갈대들이 서 있고, 작은 둔덕에 밀집한 버드나무 가지마다 연두색 물이 올라 있었다. 산책하는 동안 몸에 걸친 불행과 나쁜 기억이라는 축축한 옷들을 말린 느낌이다. 덕분에 산책을 끝낸 뒤 살아 있다는 감각은 더없이 생생해지고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 낮 시간이 길어진 탓에 아직 날은 밝다. 해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기에 남은 마지막 빛이 낮은 고도로 깔리면서 버드나무 그림자가 늘어지고, 서편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

사설

청와대 경제상황 인식 정말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 받으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월 고용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강조했다.

적절한 정책 방향의 제시다. 그럼에도 절박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여전히 낙관론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경제의 견실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고, 경제 심리지표가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배경은 알 만하다. 통계청의 1월 산업생산 동향 조사 결과다. 올해 1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3개월 만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생산이 0.8%, 소비 0.2%, 투자는 2.2% 늘었다. 하지만 작년 11~12월 이들 지표가 마이너스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설 명절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6%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1972년 이후 처음 있는 일

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얘기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2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3000명 증가하긴 했다. 그러나 고용사정이 더 나빠졌다. 실업자가 130만3000명으로 3만8000명 늘고,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가 증가한 곳은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1만7000명이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7000명 급증했다.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지속성 없는 단기 공공 일자리다. 반면 민간의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15만1000명, 금융·보험업도 3만8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은 도소매업은 6만 명 감소했다. 실제로는 고용이 크게 쪼그라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면서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알고 그런다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입맛에 맞는 수치로 사실을 왜곡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얘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진단으로는 가리앉은 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대통령이 정확한 실태부터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전단지(傳單紙)와 지라시

요즈음이야 전자신문을 많이 보지만 예전에 종이신문을 볼 때는 거의 매일 신문에 끼여 들어오는 광고지를 접하곤 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의 대문이나 벽에 각종 광고물을 붙이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성가신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광고물을 흔히 '지라시(찌라시)'라고 한다. 지라시는 일본어 'ちらし(ちらし)'에서 온 말이며 그 본래의 뜻은 '흩뜨려 놓음'이라고 한다. 광고 문구를 적은 종이쪽을 사방에 흩뜨려 뿌리다 보니 나중에는 '흩뜨려 놓음'이라는 본래 의미보다는 '광고로 뿌리는 종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일본어 지라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쓰이면서 국어사전은 "주의, 주장이나 사물의 존재 가치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전하거나 알리기 위해 만든 종이쪽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대부분 '전단지(傳單紙)'라는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단지(傳單紙)는 '전(傳)하다+단지(單子)+지(紙·종이)'로 이루어진 단어이

다. '하나',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홀단(單)'과 물건을 나타내는 접미사 '-자(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 단자(單子)는 애경사에 보내는 부조나 선물의 품목, 수량, 보내는 사람의 이름 등을 적은 종이를 이르는 말이며, 또 결혼할 때 보내는 사주(四柱: 생년월일시)를 기록한 종이 즉 '사주단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傳單紙는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돌리는 단자 종이'라는 뜻이다.

지라시 즉, 전단지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방적인 선전과 광고이다.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신빙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어떤 무책임한 정치인은 지라시에서 본 가짜 정보로 정부를 비판하고 상대당을 공격함으로써 정치판을 어지럽힌 일도 있었다. 요즈음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짜뉴스도 일종의 거짓 지라시이다. 속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산책하고 들어와
개운하게 목욕한 아이들에게

상쾌하고 뽀송뽀송한
옷을 입혀주세요

앞선 사람들은
이렇게,에어드레서를 씁니다



골드미러

삼성 에어드레서

| 옷을 넘어라이프까지 바꾸는 진정한 의류 청정은 오직 에어드레서 뿐 |



미세먼지 필터

미세먼지 필터로 옷에서 떨어진
미세먼지를 빠르게 강력하게 집진합니다.



냄새분해 필터

제품 내부에 남은 작은 냄새 입자까지
냄새분해 필터로 분해해서 없애줍니다.



제트스팀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99.9% 살균하고,
생활주름까지 간편하게 관리합니다.



제트에어

강력한 제트에어가 인감 속 미세먼지까지
빠르게 털어냅니다.

* 99.9% 살균: 안티비스 - 코로나 99.9% 제거, 안티노 바이러스 99.9% 제거, 페리엑스 바이러스 99.9% 제거 - 시험방법: 실온 건조에서 시험소독에 노출시킨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율을 의미함 - 시험 소독: 20m x 20m의 면 소재, 모직 소재, 10회 세탁과 약탈탈의 정밀성 시험을 통해 결과값에 대해 식별, 정밀 세균인 분석(ISO 15848) 기준 99.9% 제거, 대장균 99.9% 제거 - 시험 방법: 실온 건조에서 시험 소독에 투입된 세균에 대한 살균율을 의미함 - 세균 1ml: 10m x 10cm 면 소재 시험소독 30분 - 시험에 의해 위생적 부위에서 사멸함 - 시험 대상군: 황색모노상구균, 대장균 - 국제인증기관 KIRA® 인증을 받은 저사살균 결과값 - 살균률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